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캘리그래피를 활용한
고교미술수업 지도방안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양 효 주

2015년 8월

캘리그래피를 활용한 고교미술수업 지도방안 연구

지도교수 강 민 석

양 효 주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8월

양효주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5년 8월

The Research of High School
Art Teaching Methods using Calligraphy

Hyo-ju Yang

(Supervised by Professor Min-Suk Kang)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2015. 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Thesis director, Min-Suk Kang, Prof. of Art Education

Date

Department of Art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국문초록>

캘리그래피를 활용한 고교미술수업 지도방안 연구

양 효 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지도교수 강 민 석

급속하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는 발전의 한계에 부딪힌 각 분야들 간에 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창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춰 미술 분야에서도 영역 간 통합프로세스를 통해 다양한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이를 주도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미술교육에서는 다양한 장르, 과거와 현재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새로운 미술교육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와 잘못된 접근 방식, 입시 위주의 교육체계 및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로 인해 효과적인 미술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표현의 한계에 부딪힌 타이포그래피가 전통서예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캘리그래피를 융합형 인재를 기르기 위한 교육내용으로 선정하고, 캘리그래피를 활용한 미술수업 지도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통하여 동서양의 역사 속에서 캘리그래피의 현대적 의미를 고찰하고, 표현요소 및 표현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캘리그래피를 활용한 미술수업의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총 2차시의 캘리그래피를 활용한 포스터 제작수업 지도방안을 구안하여 제주도 제주시 소재한 J고등학교 1학년 4학년 1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첫째, 손글씨라는 소재의 친근함이 미술교과에 대한 자아효능감이 낮은 학생들에게 실패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 적극적으로 창작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캘리그래피를 활용한 미술수업은 자기만의 독특한 글씨를 표현할 수 있는 창의적 표현활동으로, 학생들의 캘리그래피에 대한 흥미뿐만 아니라 미술교과에 대한 흥미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셋째, 학생들에게 서예의 주재료인 먹을 재인식하게 함으로써 전통서예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전통을 현대적 시각에서 재해석하는 일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넷째, 다양한 표현재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 표현방법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목적에 맞는 표현방법을 찾아봄으로써 새로운 문제해결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적인 사고력을 기르는데 도움을 주었다.

캘리그래피를 활용한 미술수업이 기법위주의 미술교육으로 인해 미술에 흥미를 잃어버린 학생들에게 다시금 인간 본연의 창작 욕구를 일깨우고, 융합의 시대에 널리 소통하는 태도와 창조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본 논문은 2015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목 차

국문초록	i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제한점	3
II. 이론적 배경	4
1. 캘리그래피의 이해	4
2. 캘리그래피의 표현과 활용	21
III. 캘리그래피를 활용한 미술수업의 실제	44
1. 캘리그래피와 미술교육	44
2. 교육과정분석	47
3. 캘리그래피를 활용한 미술수업 지도방안	50
4. 수업결과분석 및 기대효과	60
IV. 결론	76
참고문헌	78
Abstract	80
부 록	82

표 목 차

<표 1> 훈민정음 닿소리와 홀소리	11
<표 2> 활자와 캘리그래피의 비교	19
<표 3> 수업 전 설문조사 결과	52
<표 4> 차시별 교수-학습계획	54
<표 5> 1차시 교수-학습지도안	55
<표 6> 2차시 교수-학습지도안	57
<표 7>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59
<표 8> 학생작품	60
<표 9> 수업에 활용된 아이디어 구상지 교수-학습자료	66
<표 10> 수업에 활용된 PPT 교수-학습자료	67
<표 11> 수업 후 설문조사 결과	69

그림 목 차

<그림 1> ‘새’ 를 의미하는 상형문자가 설형문자로 발전된 모습	5
<그림 2> 돌에 새겨진 페니키아 문자	5
<그림 3> 현대 아랍의 캘리그래피	6
<그림 4> 우리나라의 문자도	6
<그림 5> 훈민정음 자모음 원리도	11
<그림 6> 언어의 이미지화	14
<그림 7> 우연의 효과에 따른 ‘꽃’ 의 다른 이미지	15
<그림 8> 정병규의 테이프 타이포그래피를 활용한 디자인	16
<그림 9> 소재의 자연적 운동성이 적용된 글자 배열	17
<그림 10> 글자 배열·먹의 농도 차이에 의한 율동성	17
<그림 11> 글자의 크기·형태·질감에 의한 율동성	17
<그림 12> 글자의 형태 변형	22
<그림 13> 글꼴 및 글줄의 형태 변형	23
<그림 14> 글자 크기의 대비효과	24
<그림 15> 색의 확산과 축소의 착시현상	25
<그림 16> 색의 착시현상이 광고에 적용된 예	25
<그림 17> 농담	25
<그림 18> 글꼴 고유의 속성과 글줄 배열에 따른 질감 차이	26
<그림 19> 표현방법과 표현 도구에 따른 질감 차이	27
<그림 20> 다양한 표현 도구에 따른 질감 차이	28
<그림 21> 글자 사이의 다양한 공간	29
<그림 22> 공간의 여백	30
<그림 23> 단순성의 법칙	30
<그림 24> 글자의 심리적 무게	31
<그림 25> 글자의 방향성	32
<그림 26> 화면에서 글자의 위치	33

<그림 27> 글자의 시간성	34
<그림 28> 캘리그래피의 도형 요소	35
<그림 29> 통일과 변화의 원리	36
<그림 30> 균형과 율동의 원리	37
<그림 31> 포스터에 사용된 캘리그래피	38
<그림 32> 북커버에 사용된 캘리그래피	39
<그림 33> 패키지디자인에 사용된 캘리그래피	40
<그림 34> 광고에 사용된 캘리그래피	41
<그림 35> 방송 및 음반 타이틀에 사용된 캘리그래피	42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다문화 시대의 도래로, 서로 다른 가치들이 상충하고 화해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융합’의 트렌드는 사회 모든 분야의 경계를 끊임없이 허물고 재구성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현대 미술의 영역도 기존 방식에 대한 거부, 해체와 융합의 움직임 속에서 ‘새로움, 다양성’에 대한 실험으로 폭발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새롭게 생겨난 미술 형식은 기존 미술 양식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그 틀을 깬으로써 사람들에게 충격과 함께 신선한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공식에 안주하지 않는 현대 미술의 본질이다.

이러한 ‘독창성의 추구’는 프란츠 치젝(Franz Cizek, 1865-1946)이후 미술 교육의 오랜 화두였다. 그는 모사에 의한 입화나 기능 위주의 훈련에 편중되었던 미술교육에 창조로 이끄는 힘이 없음을 역설하였고, 창의성 중심의 미술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 창의성의 의미와 방향은 시대나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조금씩 달라졌으나 그 중요성은 변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나라 미술교육도 제2차 교육과정시기인 1960년대부터 창의성 중심 미술교육을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현장은 교육여건의 미비,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운영 등으로 창의성 계발을 위한 미술교육이 실현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역설적이게도 창의성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기법이 강조되는 현상이나 창의성에 대한 잘못된 접근 방식의 교수법은 학생들에게 미술은 어려운 것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기도 하였다. 이는 학생들의 미술교과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하고, 미술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함으로써 현대인의 삶과 미술의 거리를 더욱 멀어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 김성숙 외 8인(2008), 「미술교육과 문화」, 학지사, pp. 77-78.

또한 학업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긴장감이 높은 학생들은 정서적인 관심과 자기표현을 위한 배출구가 필요하다. 미술교육의 또 다른 본질 중 하나가 표현활동을 통한 인간의 감정을 표출하는 정서교육이라는 점에서 학생들이 쉽게 접근하여 다양한 표현 방법을 자유롭게 시도하고, 자신만의 고유한 표현 가능성을 발견하는 가운데 예술표현에 대한 근원적인 충동을 해소할 수 있는 창의적인 미술 수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우리 삶에서 자주 마주치는 캘리그래피를 활용한 미술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미술교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미술에 대한 흥미를 증진시킬 수 있는 지도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자신만의 독특한 손글씨 표현을 통해 창의적 표현활동은 어렵다는 인식을 해소하고, 서예의 주재료인 ‘먹’에 대한 고정관념을 개선함으로써 우리 전통예술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데 기여하였다. 더불어 딱딱하고 정형화된 삶에 메말라버린 학생들의 감성을 일깨우고, 작품 제작이 주는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미술 본연의 역할을 다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내용 및 제한점

본 연구는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미술수업을 통해 창의성을 증진시키고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수업으로 캘리그래피를 활용한 미술수업을 선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이에 문헌연구를 통해 캘리그래피의 현대적 의미와 특징들을 살펴봄으로써 캘리그래피를 활용한 미술수업의 당위성을 찾고, 캘리그래피가 활용된 사례를 중심으로 표현요소와 원리들을 검토하여 수업에 적용할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캘리그래피를 활용한 미술수업 지도방안을 구안하여 수업에 적용한 후 결과물 분석 및 설문지법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학생들의 창의성 계발을 위해 다양한 표현 재료를 풍부하게 제공하고, 표현 방법 및 활동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으려 했으나 학교 여건상 2차시의 수업만이 실시되었고, 모둠별로 5가지 이내의 표현 재료만이 제공되었다.

둘째, 제주도 제주시 소재한 J 고등학교 1학년 4개 학급 158명을 대상으로 수업을 실시하고, 2차시의 결과물만을 제시하여 이를 전체 고등학교 수준으로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있다.

셋째, 서예의 주재료인 먹과 붓, 화선지, 벼루는 기본적으로 제공하였으나 표현 재료로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어 먹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변화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II. 이론적 배경

1. 캘리그래피의 이해

캘리그래피(Calligraphy)는 ‘아름답다’ 라는 뜻의 그리스어 칼로스(kallos)와 ‘필적’ 이란 뜻인 그래피(graphy)의 합성어로, 넓게는 손으로 쓰는 모든 문자나 기술, 좁게는 동양의 서예를 뜻한다.²⁾ 하지만 현대 미술에서 ‘캘리그래피’라는 개념은 분명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다의적(多意的)인 성격을 가진다. 그 이유를 캘리그래피의 역사를 통해 찾아보았다.

1) 캘리그래피의 역사적 정의

알타미라 동굴에서 발견된 벽화와 고대 중국의 갑골문은 머릿속 생각을 그림과 문자를 통해 소통하려는 인간의 본질적 욕구와 맞닿아 있다. 문자와 회화적 표현의 밀접한 관계는 이후에도 계속되었으나 서로 다른 문화와 기후·환경의 차이로 인해 쓰기도구가 달라지면서 지역적으로 다른 형태의 문자로 발전하였고, 동양과 서양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오게 되었다. 동·서양의 역사 속에서 캘리그래피가 어떻게 다른 성격을 띠게 되었는지 살펴보고, 현대적 의미의 캘리그래피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1) 서양의 캘리그래피

스페인 북부 알타미라 동굴에는 기원전 약 3만 년 전 그려진 벽화가 있다. 이는 사람들의 ‘기록’ 혹은 ‘소통’의 욕구가 구체화 된 것으로, 글자가 없던 그 시기에는 그림이 의사소통을 위한 글자의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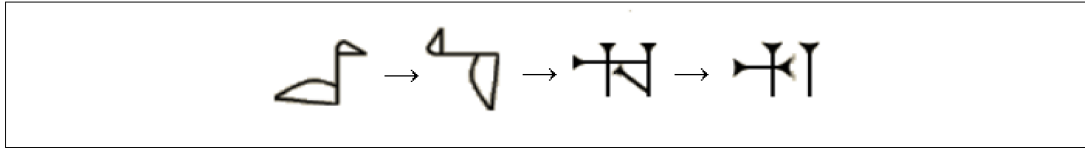
이러한 그림문자 즉, 상형문자(象形文字)³⁾는 기원전 3000년경, 설형문자(楔形

2) 헤럴드 오즈본(Harold Osborne, 2002), 한국미술연구소 역, 「옥스퍼드 미술사전」, 시공사, p. 907.

3) 인물이나 동물 또는 사물을 그려서 그것에 관련된 단어나 음절 또는 소리를 나타낸 문자.

文字)4)의 형태로 바뀌면서 추상성을 띠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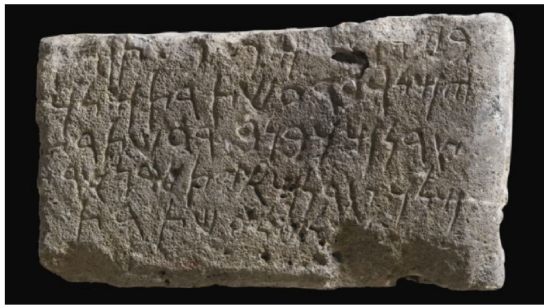
<그림 1> ‘새’를 의미하는 상형문자가 설형문자로 발전된 모습



출처: 왕은실 캘리그래피(2013),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 캘리그래피」, 길벗, p. 214.

이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설형문자를 탄생시켰던 수메르 민족이 쓰기 도구로 갈대 가지를 주로 사용함으로써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땅, 산, 물고기 등 단순한 의미의 설형문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최초의 기록체제로, 갈대 가지 끝을 뾰족하게 만들어 썼기 때문에 가장자리에 삼각형이 있는 특징을 보인다. 오랜 시간동안 이러한 방법으로 쓰여 지면서 가장자리의 삼각형은 글자의 한 형태로 자리 잡았다. 이처럼 글자의 형태는 쓰기 도구의 특징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림 2> 돌에 새겨진 페니키아 문자



출처: 프랑스국립박물관연합(RMN)

기원전 1700년경 시나이 반도의 광산에서 일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자음만으로 이루어진 최초의 알파벳, 시나이 문자가 기록됐다. 이는 초기 서양 문자 형태로, 모든 알파벳 체계는 이 시나이 문자에서 시작되었고, <그림 2>와 같이 돌에 날카로운 도구로 새기는 에피그라피(epigraphy) 형태로 기록되었다.

기원전 1000년경 단어 이상의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가 페니키아인들로 하여금 시나이 문자를 발전시켜 알파벳과 유사한 기호를 개발하게 했

4) 고대 메소포타미아인들이 사용했던 고문자로 자형이 썩기 모양을 하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주로 진흙판에 갈대로 만든 펜으로 글을 썼다.

다. 이것은 기호를 서로 연결하여 수많은 의미를 만들어낸 첫 시도로 글자 형태의 추상성은 더 심화되었다.

이후 기원전 800년경 그리스인들이 페니키아 문자에 모음을 추가하였고, 기원전 500년경에는 자음 17개와 모음 7개를 갖춘 지금의 알파벳이 만들어졌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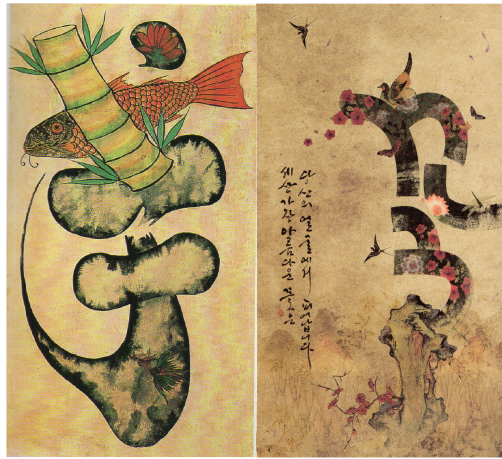
또한 페니키아 문자는 아랍문자(arabic alphabet)의 형태로도 발전해갔다. 아랍문자는 다양한 서체와 문화를 태동시켰는데, 초기에는 생산성 향상과 행정상의 필요에 의한 기능적인 목적으로 문자를 사용하기 위함이었지만 문화발전이후에는 신의 계시, 즉 코란(koran)을 한 음절도 틀리지 않고 기록하고 가르쳐야 했기 때문이다. 신의 계시는 정확한 형태뿐만 아니라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아름답고 완벽하게 써야 했다. 이처럼 문자는 종교·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으며, 이러한 경향은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이슬람만의 독특하고 화려한 캘리그래피 문화를 이루고 있다.

<그림 3> 현대 아랍의 캘리그래피



출처: 한양대학교박물관(2013), 「신의 목소리를 보다 이슬람캘리그래피」, 한양대학교출판부, p. 68.

<그림 4> 우리나라의 문자도



출처: 노영자 외 3인(2014), 「고등학교 미술 창작」, (주)교학사, p. 77, 김종건(2009), 「The KKOT」, 필묵

<그림 3>은 현대 이슬람의 캘리그래피로, 동물 형상 안의 글자들이 하나의 무늬처럼 인식되면서 독특한 질감이 느껴진다. 이는 <그림 4>의 우리나라 민화 중 하나인 문자도⁶⁾를 떠올리게 하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시간이 지나며 추상

5) 왕은실 캘리그래피(2013),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 캘리그래피」, 길벗, pp. 214-215.

6) 민화의 한 종류로, 한문자를 도식화하거나 변형시켜 그 의미를 형상화한 그림.

성을 띠는 문자에 다시 조형성을 부여하려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심리다. 이는 문자를 아름답게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동서고금 공통의 것임을 말해준다.

한편 서양은 중세 암흑기로 들어서면서 오랫동안 라틴 문자를 사용하게 되었다. 기독교 세력이 팽창하면서 성경 필서도 라틴 문자로 수행해야만 했는데 이를 계기로 수도사들은 필경(筆耕)사⁷⁾로 교육을 받게 되었고, 채식필사본(彩飾筆寫本)⁸⁾도 만들게 되었다. 하지만 이는 각 나라마다의 차이나 개인이 소유한 깃털 펜의 구조, 펜을 쥐는 방법 등에서 오는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특정한 목적을 위해 정해진 서체를 사용하는 관습이 있었다.⁹⁾ 12세기 말에 이르러 이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발생하면서 필경 작업소가 늘어나고 필경사도 더욱 전문화되어가면서 이러한 경향은 뚜렷해졌다.¹⁰⁾

그러나 15세기에 요하네스 구텐베르크(Johannes Gutenberg, 1397-1468)가 활자를 발명하고, 인쇄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타이포그래피가(typography)가 널리 쓰이게 되었다. 타이포그래피란 활자라는 의미를 갖는 타입(type)과 기술법(記述法)이라는 의미의 그라피(graphy)가 합성된 용어로, 기계적인 수법에 의한 서체를 지칭하는 데 사용된다.¹¹⁾ 이후 과학 기술과 상업 미술이 발달하면서 타이포그래피는 시각디자인의 주요요소로 자리 잡으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발달해 왔다.

이러한 경향 속에서 19세기 말, 사실주의가 쇠퇴하면서 캘리그래피가 다시 주목받게 되었는데, 이는 기호 및 운동 표현으로서의 역동적이고 암시적인 표현력이 재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1950년대 파리, 뉴욕의 추상 표현주의 화가들에게서 캘리그래픽한 추상화가 성행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¹²⁾

이처럼 서양의 캘리그래피는 인간의 소통에 대한 근원적인 욕구에 의해 그림 문자의 형태로 시작되었고, 각 시기별·지역별로 사용된 필기도구나 그 사회의 문화 혹은 종교에 의해 다른 방식으로 발전해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문자 연습서가 따로 만들어지기도 하는 등 규칙성 있는 서체를 개발하기 위

7) 직업으로 글씨를 쓰는 일을 하는 사람.

8) 글, 그림과 여러 종류의 장식으로 꾸며진 사람의 손으로 쓴 책.

9) 해럴드 오즈본(Harold Osborne, 2002), 전계서, p. 908.

10) 이규복(2008), 「캘리그래피」, 안그래픽스, pp. 47-50.

11) 박선의(1990), 「디자인 사전」, 미진사, p. 304.

12) 중앙일보사(1989), 「세계미술용어사전」, 중앙일보사, p. 394.

한 노력이 지속되었고, 펜을 주된 쓰기도구로 사용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세기 말 추상표현주의 화가들로부터 서예가 주목받게 된 이유는 이처럼 변화의 폭이 적고 잘 정돈된 타이포그래피보다 둥근 모필붓으로 폭 넓은 변화를 보여주는 서예가 생생한 리듬감을 표현하기에 적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 동양의 캘리그래피

① 중국

중국의 문자는 상형문자에서 발전된 것으로, 대표적인 갑골문자(甲骨文字)¹³⁾는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문자로 알려져 있으며, 날카로운 칼로 새겼으나 붓의 흔적이 발견되어 쓰기 도구에 있어서 초기부터 서양과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갑골문자는 주(周)나라 시대를 지나 춘추전국시대에 이르게 되는데, 이 시기는 각 지방에 할거했던 제후들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다투던 매우 혼란했던 때로, 문자 또한 각 나라마다 다르게 발전되어 갔다.

이렇게 혼란했던 시대를 통일하여 천하를 제패한 진(秦)의 시황(始皇)은 ‘문자통일’이라는 중요한 업적을 이루어 내는데, 이 문자를 ‘소전(小篆)’이라고 한다. 아울러 이 시기에는 편리성과 실용성을 증시한 ‘예서’가 출현하게 된다. 하지만 실용성을 지나치게 증시한 나머지 너무 간략화 시키거나 필획을 변형시켜 한자가 갖는 고유의 표의성을 크게 훼손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¹⁴⁾

이후 한(漢)시대에 이르러 '초서'의 출현과 함께 예서(隸書)특유의 '파책'이라는 획이 생겼고, 한나라 말기에는 서예가 예술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전문적인 서예가가 출현하게 되었다. 이들에게 글씨를 받기 위해 막대한 돈을 지불하는 사회적 현상도 생겨났는데,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는 이 시대 석비의 유행과 더불어 종이의 발명¹⁵⁾이 큰 역할을 하였다. 이는 종이의 모세관 굵기와 분포, 먹의 입

13) 중국 고대 점술에 사용하는 거북이 등껍질이나 동물 뼈에 새긴 글씨. 그림과 글씨의 요소를 함께 갖고 있지만, 순수한 그림·글씨로부터는 상당히 진전된 단계임.

14) 김희정(2007), 「서예란 어떤 예술인가」, 다운샘, p. 183.

15) 105년 중국의 후한 시대에 환관인 채륜(蔡倫)이란 사람이 나무껍질, 천 조각, 폐어망 등을 이용하여 종이를 만들었다. 전한 때 대마(大麻)로 만들어진 종이가 발굴되었으나 채륜의 제지법이 편리하여 널리 전해지게 되었다.

자크기, 물의 양이 서예가의 운필¹⁶⁾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 다양한 작품 창작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특히 먹의 농담은 평면상에 여러 개의 레이어(layer)를 만들어 입체적인 표현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부드럽고 거친 질감까지 구현할 수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풍부한 정서를 느끼게 한다.

위진남북조시대에 왕희지(王羲之, 307-365)는 서예를 실용성에서 순수예술로서의 정점에 이르게 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는데, 이 시대의 서예는 단지 문자의 전달 기능이 아닌 그 사람의 품격과 사상을 나타내는 예술형식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후 해서(楷書)의 전성기였던 수·당시대의 안진경(顔眞卿, 709-785)은 왕희지의 글씨에 반대되는 혁신적인 서체를 완성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송시대는 각 서가의 개성적인 서체를 표현해 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시기로, 소동파(蘇東坡, 1037-1101), 황정견(黃庭堅, 1045-1105), 미불(米芾, 1051-1107) 등이 대표적이며 이들은 주변국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명·청시대는 오늘날 서예에 많은 영향을 끼친 시기로 명나라 말기에 이르러서는 각자의 개성과 예술성을 추구하면서 글씨만을 써서 생활하는 전문 직업 서예가가 출현하게 되었다.¹⁷⁾

이처럼 중국의 캘리그래피는 상형문자라는 서양과 비슷한 출발점에서 시작되었으나 쓰기 도구로 등근 붓을 사용했다는 점과 제지업의 발달로 다양한 농담 표현과 획의 굵기나 질감의 변화를 통해 역동적인 표현이 가능해지면서 글씨가 인격수양의 수단으로 여겨지고, 하나의 순수 예술로 자리매김했다는 데에 서양과 큰 차이가 있다. 이는 기계와 상업의 발달에 힘입어 대중들에게 쉽게 읽히기 위한 가독성을 중심으로 발달해온 타이포그래피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② 한국

우리나라의 문자생활은 고조선 시대인 기원전 4-3세기경에 중국 전국시대 문화의 유입으로 한자가 수용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때 서예도 같이 시작되었으리라 짐작된다.¹⁸⁾

16) 점이나 획을 움직이는 방법, 즉 붓을 움직이는 것을 뜻하고 여기에는 필압, 속도, 농도의 요소가 관여함.

17) 이규복(2008), 전계서, pp. 51-53.

18) 국사편찬위원회(2011), 「한국 서예문화의 역사」, 경인문화사, p. 8.

삼국시대 중 고구려는 중국의 문화를 가장 먼저 받아들여 전·예·해·행·초서의 다양한 서체와 함께 중국과는 다른 고구려만의 독특한 서예 문화를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백제는 바다를 통하여 주로 중국의 남조와 교류하면서 일본으로 불교와 한문을 전파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¹⁹⁾ 신라는 중국과의 왕래를 시작한 6세기 초엽부터 중국의 영향이 보이기 시작하다가 삼국통일을 기점으로 당의 해서문화를 수용함으로써 혁신적인 양식으로 발전하였다. 견당유학생 중 문필에 능한 인물이 많이 배출되었는데, 김생(金生, 711-791)과 석영업(釋靈業)이 왕희지체(王羲之體)로 이름을 떨쳤고, 최치원(崔致遠, 857-?)은 구양순체를 바탕으로 자기만의 독특한 개성을 가미하여 훌륭한 서체를 남겼다.

고려시대는 과거 제도의 잡과(雜科)에 서업(書業)이라는 글씨만을 전문으로 쓰는 관리를 선출하였는데, 이는 서예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원나라의 학자들과 고려의 학자들이 교류하면서 중국 서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조선시대는 수많은 학자와 예술가를 배출하는 등 초기부터 문화의 황금시대를 열었다. 특히 한글 창제와 금속활자의 주조, 전적(典籍)의 간행, 건축과 회화의 발달 등 문화 전반에 걸쳐 많은 발전을 이룩한 시기이다.

조선 초기 원나라의 대학자였던 조맹부(趙孟頫)의 서체인 송설체가 유행하면서 서인쇄활자에 많은 영향을 끼치며 대중화되었다.

조선 중기는 실학의 발달로 우리 것을 찾자는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동국진체(東國眞體)가 출현하였다. 이는 옥동 이서(李敍, 1662-1723)로부터 시작하여, 윤순(尹淳, 1680-1741), 이광사(李匡師, 1705-1777)로 이어져 조선의 고유색을 드러내게 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청나라 학자들과의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서예가 발전하였다. 대표적 서예가인 김정희(金正喜, 1786-1856)는 일찍이 청에 들어가 새로운 지식과 학문을 배우고, 자기만의 독창적인 서체를 완성하였다.²⁰⁾

이처럼 우리나라의 서예는 오랫동안 중국 서법의 영향을 받아왔다. 우리만의 독특한 서체를 찾으려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꾸준하게 이어져 오진 않았다. 하지만 우리 고유의 글자인 한글창체로 인해 이전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띠게 된다.

19) 이규복(2008), 전개서, pp. 58-60.

20) 상계서, pp. 60-63.

③ 한글과 캘리그래피

한글의 본래 명칭은 ‘훈민정음’으로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1443년(세종 25) 세종대왕이 창제하여 3년 후인 1446년에 반포되었다. 『훈민정음 해례본』 예의편 제자해(制字解)에 따르면 초성(당소리:자음) 17자, 중성(홀소리:모음) 11자, 모두 28자를 창제했는데, 당소리 17자는 상형성(象形性)이 있는 ㄱ ㅋ ㆁ ㄷ ㅌ ㄴ ㄹ ㄷ ㅌ ㄴ ㄹ ㄷ ㅌ ㄴ ㄹ ㄷ ㅌ ㄴ ㄹ 을 기본으로 점획을 가획(加畫)하거나 획을 연장시켜 2-3차의 자음을 제자하였고, 홀소리 11자는 천지인(天地人) 3재(三才)의 형상, 즉 기본자 ㆍ ㅡ ㅣ 에 점획을 가하여 초출자(初出字) 4종, 재출자(再出字) 4종을 제자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훈민정음 당소리와 홀소리

당소리		홀소리	
어금닛소리(아음-牙音)	ㄱ ㅋ ㆁ	기본자	ㆍ ㅡ ㅣ
혓소리(설음-舌音)	ㄴ ㄷ ㅌ ㄹ	초출자	ㅏ ㅑ ㅓ ㅕ
입술소리(순음-脣音)	ㅁ ㅂ ㅍ	재출자	ㅛ ㅜ ㅠ ㅡ ㅝ
잇소리(치음-齒音)	ㅅ ㅈ ㅊ ㅌ		

출처: 국사편찬위원회(2011), 한국 서예문화의 역사, 경인문화사, pp. 329-330.

<그림 5> 훈민정음 자모음 원리도



출처: 국사편찬위원회(2011), 한국 서예문화의 역사, 경인문화사, p. 331.

훈민정음 자모음 원리를 도식화한 <그림 5>를 보면 한글의 조형적 규칙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상형성이 있는 자음에 가획하거나 획을 연장하여 글자를 만들었기 때문인데, 이는 한글이 훌륭한 조형언어가 될 수 있음을 뜻한다.

훈민정음의 서체는 한글서체 형성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데,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책을 간행하기 위해 만들어져 ‘판본체’라고 한다. 이와 함께 한글의 서체는 궁체, 필사체로 구별할 수 있다.²¹⁾ 궁체는 주로 궁중에서 사용되던 글씨체

21) 국사편찬위원회(2011), 전계서, pp. 326-337.

로 일정한 규칙과 법칙을 가지고 쓰여 졌다. 이는 다시 정자, 반흘림, 흘림, 진흘림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정자는 단정하고 정교하면서 한 치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엄격함 때문에 쓰기가 매우 어렵다.

조선 중기에 이르러 한글은 변화를 피하게 된다. 창제 이후 글자가 거의 비슷한 크기의 공간에 쓰였던 것에서 글자마다 스스로의 크기에 알맞게 쓰이는 변화를 가지게 되었다. 즉, 작은 글씨는 작게, 큰 글씨는 크게 쓰기 시작하고, 더불어 ‘|’ 축으로 글자 중심이 이동하게 되면서 한글 궁체만의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조선 후기의 궁체는 궁중에서 언해본의 활용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전문적으로 언문글씨를 필사하는 서사상공까지 두면서 크게 발전하였고, 19세기 후반에는 한문 존중의 시기를 벗어나 언문이란 말이 사라지면서 각종 저서에 한글만을 쓰게 되는 한글 부흥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필사체는 어떤 정형화된 틀 없이 자유롭게 쓴 것으로 주로 궁밖에 거주하는 일반 백성들이 많이 사용하였다. 소박하고 꾸밈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고 편안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이를 응용한 서체가 많이 나와 현재는 ‘민체’라는 서체명으로 창작되고 있다.

일제시대에는 한글 말살 정책으로 한글이 극도로 위축되었으나 해방 이후 한글 궁체의 정자와 흘림체가 주를 이루다 1970년대를 기점으로 한글 판본체 등이 활발하게 쓰여 지면서 다양화되기 시작하였고, 1999년에는 서예가의 글씨로 제작한 폰트인 효봉체를 필두로 다양한 서체가 개발되었다. 이후 2000년대에는 ‘감성’을 기치로 내건 캘리그래피가 다양한 디자인 분야에 사용되면서 그 영역을 더욱 확대해 가고 있다.²²⁾

이처럼 기원전 동굴벽화에서부터 시작된 손글씨는 동양과 서양이라는 지역차이와 그에 따른 쓰기 도구의 차이로 인해 글자의 형태가 달라졌고, 이는 표현과정에서 시각적으로 많은 차이를 가져왔다. 또한 시대별 각 나라의 문화·종교적 차이에 따라 글자를 쓰는 이유와 방식이 달라지면서 서양은 규칙적인 양식을 만들고자 하는 경향이 강해졌는데, 이는 인쇄술의 발달과 함께 상업디자인의 한 요

22) 이규복(2008), 전개서, pp. 64-69.

소인 타이포그래피의 형태로 발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반면 동양은 붓, 먹, 종이의 조합에 따른 우연적인 효과에 주목하고, 글자에 각자의 개성과 정서를 표현하고자하는 순수예술의 성격을 띠며 발전해왔다.

그래픽 디자이너 스기우라 고헤이(Kohei Sugiura, 杉浦康平, 1932-)는 그의 연작 <문자의 우주>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문자는 일찍이 자연의 ‘모습’을 반영해 만들어졌다. 그 모습과 형태에 자연의 ‘생명’을 불어넣으면 문자는 생생하게 약동한다. 문자는 약동적인 ‘표시’다.”

이는 현대의 타이포그래피가 글꼴의 규칙성을 찾는데 몰두하면서 점차 글자의 뒤틀음을 지워나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사람들에게 딱딱하고 건조한 느낌을 강하게 전해주게 되는데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동시에 타이포그래피가 단순한 조형의 문제가 아닌 글자에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에 달려있음을 말한다. 이를 극복하고자 동양의 서예에 눈을 돌리게 되면서 탄생한 것이 현대 디자인에서 말하는 캘리그래피다. 이와 같은 이유로 캘리그래피는 타이포그래피와 서예의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표현 재료나 형식에 구애됨이 없어 앞으로 다른 형태로의 발전가능성이 무한한 문자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2) 캘리그래피의 특징

오랜 역사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해 온 캘리그래피를 한 마디로 정의하기 어렵지만 우리나라 현대 미술에 나타난 캘리그래피의 사례 속에서 몇 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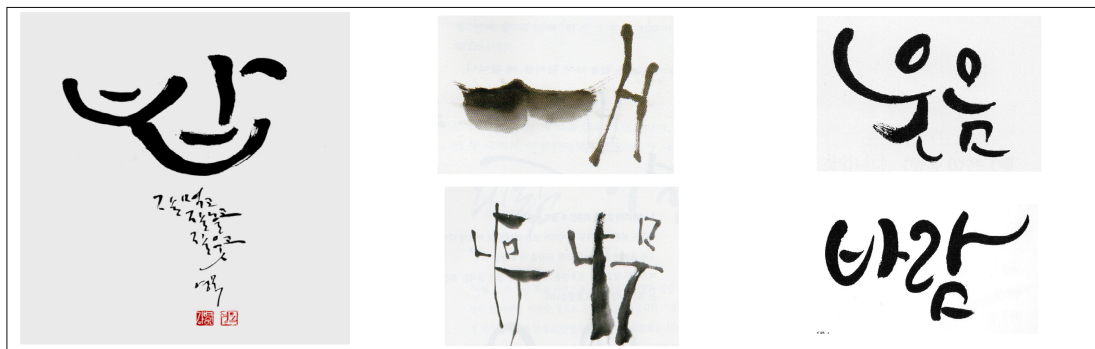
(1) 회화성

한글은 표음문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 원리에서 드러나듯이 한자문화권의 문자의식인 상형성이 강하게 배어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글이 시각구조상 강한 이미지성이 잠재되어있는 문자임을 의미한다. 다른 문자와 비교하여 수직과 수평의 콘트라스트가 강하고, 자음이 동그라미, 세모, 네모 등의 기초 도형들로 이루어져있으며, 이러한 기본 도형 요소와 함께 모음의 수직, 수평적 특징은 시

각적으로 수많은 변주가 가능한 원형적 요소라는 점이 그 근거가 된다.²³⁾

후기 인상파 화가인 폴 세잔(Paul Cezanne, 1839-1906)은 시시각각 변하는 사물 외양의 기저에는 본질적이고 변화하지 않는 구조가 있다고 믿고, 눈에 나타나는 외관을 모방하는 대신 자연의 본질적인 기하학적 구조를 통찰하여 시각화하고자 하였다.²⁴⁾ 세잔의 주장에 따르면 원형적 요소로 구성된 한글은 사물이나 자연을 시각화하기에 적합한 조형언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6> 언어의 이미지화



출처: 왕은실 캘리그래피(2013),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 캘리그래피, 길벗*, p. 103, 109, 115, 120, <http://www.sooltong.co.kr/>

<그림 6>을 보면 ‘밥’이라는 글자의 초성, 종성인 ‘ㅂ’은 넉넉하게 담긴 밥공기를 연상시킨다. 중성 ‘ㅏ’와 종성 ‘ㅂ’의 조합은 식사를 하며 즐거워하는 사람의 얼굴표정처럼 보이기도 하고, 따끈한 밥을 지으신 엄마의 표정으로 읽히기도 한다. ‘새’의 ‘ㅅ’은 날아가는 새의 날개를, ‘웃음’이라는 글자는 다정하게 웃으면서 걸어가는 두 사람의 걸음걸이를 연상시킨다. ‘나무’는 겨울철 건조하게 메마른 나무가 서 있는 것처럼 보이며, ‘바람’이라는 글자에서는 부드러운 바람이 글자를 통과하고 있는 듯하다. 이처럼 글자의 형태가 자연과 사물의 조형적 요소와 닮아있고, 획의 굵기나 형태가 변하더라도 똑같은 글자로 읽힌다는 점에서 한글은 글자의 이미지화에 적합하여 회화적 표현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23) 안상수(2006), 「라라 프로젝트01 우리 디자인의 제다움 찾기」, 안그래픽스, p. 148.

24) 캐롤 스트릭랜드(Carol Strickland, 2012), 김호경 역, 「클릭, 서양미술사」, 예경, p. 217.

(2) 유연성

캘리그래피는 일회성을 가진 찰나의 예술이다. 글씨를 쓰는 사람의 기분, 먹의 농도, 손의 압력과 속도 등 다양한 요인이 한데 어우러져 한 번의 쓰기 동작으로 이루어지므로 글자나 필획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고쳐 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똑같은 내용을 같은 종이에 반복하여 쓴다고 하더라도 그 느낌이 매번 다를 수밖에 없다.

<그림 7> 우연의 효과에 따른 ‘꽃’의 다른 이미지



출처: 김종건(2009), 「The KKOT」, 필묵

<그림 7>은 ‘꽃’이라는 글자로 ‘사랑, 행복, 열정, 이별, 그리움’ 등 다양한 주제를 표현하고 있다. 똑같은 한지, 먹, 붓으로 쓴 같은 글자지만 어느 하나 같은 모습이 없다. 꽃마다 다른 꽃말이 있듯이 각각의 ‘꽃’이 다른 꽃의 느낌을 보여준다. 어떤 ‘꽃’은 언덕에 핀 제비꽃, 어떤 ‘꽃’은 길가에 핀 이름모를 꽃을 연상시킨다. 또 어떤 ‘꽃’은 꽃밭이 흐드러지게 핀 꽃밭을 뛰어다니는 어린 아이들의 역동적인 모습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처럼 보는 사람마다 각자의 경험과 당시의 기분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러한 유연성은 먹과 붓이라는 소재를 떠나서도 나타난다. 디자이너 정병규(1946-)는 캘리그래피가

붓이라는 도구에만 의지하는 전통적 태도에서 벗어나 다양한 도구적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며 ‘테이프 타이포그래피(tape typography)’를 활용한 디자인 작업을 하였다.²⁵⁾

<그림 8> 정병규의 테이프 타이포그래피를 활용한 디자인



출처: <http://navercast.naver.com/>

<그림 8>에서 북커버 디자인에 쓰인 테이프라는 소재는 떼어냈다 다시 붙일 수 있다는 점에서 찰나의 예술이라고 말하긴 어려우나, 계속적으로 테이프를 다른 방식으로 붙여나가면서 문자를 해체하고 융합하는 시도를 통해 우연의 효과를 시험한다. 이렇게 ‘우연’이 주는 즉흥적 효과는 그동안 제한된 형식과 도구에 억눌려왔던 에너지를 분출시키고, 똑같은 텍스트를 가지고도 보는 이로 하여금 다른 감정을 느끼게 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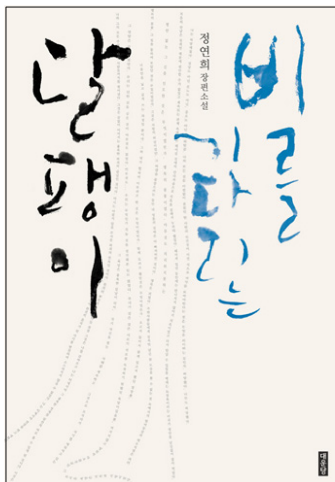
(3) 율동성

프랑스 시인이었던 기욤 아폴리네르(Guillaume Apollinaire, 1880-1918)는 시를 쓸 때 그 내용에 따라 글자의 배열을 달리 하였는데, 비에 대한 시는 비가 내리는 모양으로, 말에 대한 내용은 말의 형태로 시를 썼다. 이처럼 글의 내용과 시각적인 표현이 일치하게 하는 방법을 칼리그라프(calligrammes)라고 하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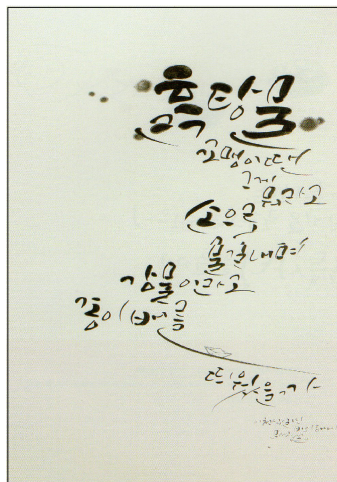
25) 전가경(2014), 네이버캐스트, 메일의 디자인, 디자이너 열전, 정병규

한다.²⁶⁾ 이는 어떤 대상의 운동성을 시각적으로 나타냄으로써 보는 이로 하여금 표현 대상의 살아있는 생명력을 느낄 수 있게 하여 보다 생생한 감각을 전해주고, 상상력을 자극하는데 효과적이다.

<그림 9> 소재의 자연적 운동성이 적용된 글자 배열
 <그림 10> 글자 배열 · 먹의 농도 차이에 의한 운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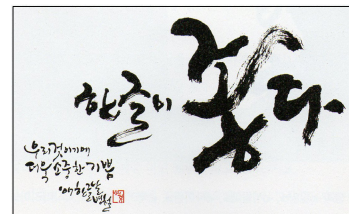


출처: <http://www.sooltong.co.kr>



출처: 왕은실 캘리그래피(2013),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 캘리그래피」, 길벗, p. 52.

<그림 11> 글자의 크기 · 형태 · 질감에 의한 운동성



출처: <http://www.orogi.com/>

<그림 9>는 ‘비를 기다리는 달팽이’ 라는 글자를 ‘비’가 내리는 운동방향을 고려하여 글자를 배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운동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시간적 운동성은 대개 시간성을 갖는 예술 즉 음악, 무용 같은 분야에서만 획득이 가능하다. 하지만 캘리그래피에서는 글자라는 소재의 특수성 때문에 시간적 운동성을 표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문자에는 쓰는 순서와 법칙이 있고, 문장을 쓸 경우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혹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글씨를 쓰고 있을 때는 물론이고 작품이 완성된 후에도 글씨를 쓸 당시의 시간 흐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보는 이의 시선이 글자를 따라 가게 함으로써 가능하다.

이러한 글자 배열에 따른 운동성 외에 표현 재료에 따른 운동성의 표현도 가

26) 김지현(1997), 「타입과 타이포그래피」, 임프레스, pp. 72-73.

능하다. 종이의 모세관 굵기에 따라서 먹의 번짐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를 활용해 글씨를 쓸 경우 윤택하거나 메마른 필획을 의도적으로 구사할 수 있어 율동성의 표현이 가능하다. 이는 <그림 11>의 경우처럼 갈필효과가 적절히 표현되어 느껴지는 율동성을 말한다. 또 자와 같은 도구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손으로 선을 긋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굵기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필선의 굵기 변화도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기호로 작용한다. <그림 10>이 그러하다.

이처럼 글자의 배열, 획의 굵기, 먹의 농도 등을 의도에 맞게 배치함으로써 보는 이로 하여금 때로는 안정되거나 때로는 불안과 같은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²⁷⁾ 이는 앞서 스키우라 고헤이가 말했던 문자의 생명력으로 1950년대 파리, 뉴욕의 추상 표현주의 화가들이 주목했던 캘리그래피의 역동적이고 암시적인 표현력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다.

(4) 상징성

상징(symbol, 象徴)이란 질적·형식적으로는 다른 두 가지가 서로 독립적인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의미로 관련을 맺고 한 편이 다른 편을 표징(zeichen) 또는 대표하는 것을 말한다.²⁸⁾

이러한 상징은 보는 이로 하여금 어떠한 정서를 불러일으키는데 이는 캘리그래피에서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에 해당한다. 가령 ‘나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누군가는 상상하게 마른 겨울나무를 떠올리고, 누군가는 새순이 돋기 시작하는 봄의 정경을, 또 다른 누군가는 여름철 시원한 나무그늘을 떠올릴 것이다. 어쩌면 나무와 관련한 재미있었던 경험을 떠올릴 수도 있다. 이때 각 개인이 연상한 이미지를 생각하며 쓴 캘리그래피는 ‘나무’라는 기호에 겨울나무, 봄의 정경, 시원한 나무그늘, 나무와 관련된 재밌던 경험과 같은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표현성을 극대화 한 상징적 조형언어로서의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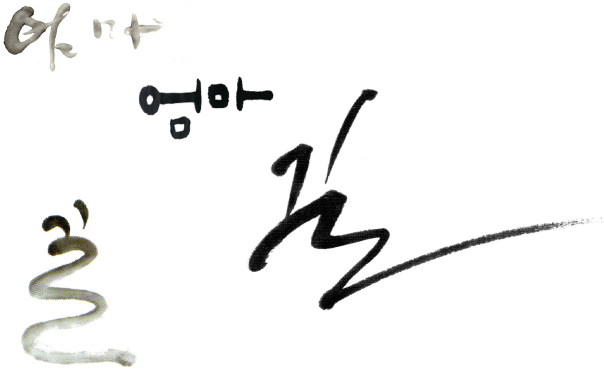
이렇게 작가가 표현하려는 감정이나 정서는 각자의 글씨체가 갖고 있는 고유의 특징과 어우러져 특별한 느낌을 자아내기 때문에 글자를 기술적으로 화려하

27) 김희정(2007), 전게서, pp. 24-37.

28) 월간미술(2007), 「세계미술용어사전」, 월간미술, pp. 226-227.

게 쓰려고 노력하거나 누군가의 글씨체를 모방하기 보다는 의도에 맞는 글씨를 쓰려는 태도를 가져야한다. 때로는 기교가 많이 들어간 글씨보다 오히려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레 꼭꼭 눌러쓴 글씨에서 진심이 묻어나고 감정이입이 잘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징성은 정형화된 타이포그래피와의 비교를 통해 확연히 드러난다.

<표 2> 활자와 캘리그래피의 비교

활 자	캘리그래피
<p>엄마 엄마 엄마 길 길 길</p>	

출처: 왕은실 캘리그래피(2013),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 캘리그래피, 길벗, pp. 97-98,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GltY&articleno=6659055

<표 2>에서 보듯이 활자로 표현된 글자도 서체마다 다른 느낌을 자아내지만 캘리그래피로 표현된 글자가 보여주는 감정의 폭에 비할 바가 못 된다. 똑같은 ‘엄마’ 라는 글자라도 눈물 젖은 엄마의 이미지를 자아내는 ‘엄마’ 가 있는가 하면, 엄마를 애타게 부르는 아이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엄마’ 가 있다. 또 순탄하고 평온한 ‘길’ 도 있지만 빠르고 거친 ‘길’ 도 있다. 이처럼 같은 글자라 하더라도 작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느냐에 따라 보는 이로 하여금 다른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이처럼 캘리그래피는 한글의 조형적 구조로 인해 다양한 회화적 표현이 가능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상의 재료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험하면서 우연의 효과를 경험할 수 있는 활동이다. 이러한 우연에서 나오는 새로운 조형감은 늘 기

대를 갖고 실험을 반복하게 하는 동기를 부여한다. 또한 붓의 탄력적인 움직임은 글자에 생생한 기운을 불어넣어 리듬감을 느끼게 해주고, 개인의 독특한 필체를 녹여내 창의적인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

2. 캘리그래피의 표현과 활용

캘리그래피의 생명은 그 글자의 표정, 즉 ‘표현성’에 있다. 글자나 글의 내용을 넘어서 작가의 의도와 느낌을 충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 따라서 좋은 캘리그래피를 쓰기 위해 고려해야 할 표현요소와 원리에는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실제 캘리그래피가 활용되는 사례 속에서 매체의 성격에 따른 각 분야별 캘리그래피의 특징들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캘리그래피를 활용한 미술수업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자 한다.

1) 캘리그래피의 표현

앞서 역사적 정의에서 살펴보았듯이 현대적 의미의 캘리그래피는 디자인 요소와 서예의 요소를 동시에 갖고 있다. 캘리그래피만 단독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주로 시각디자인 영역에서 타이포그래피 요소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또 캘리그래피는 작가의 의도를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재료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성격과 형태가 많이 달라지므로 캘리그래피에는 어떤 표현요소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표현재료나 방법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어떤 원리로 어떻게 조직하는 것이 좋은 캘리그래피가 될 수 있는지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다.

(1) 표현요소

캘리그래피의 표현요소는 크게 실재하지 않는 추상적인 속성의 개념요소와 이러한 개념요소를 가시화한 시각요소, 또 이러한 시각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상관요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개념요소

개념요소란, 실재하지 않는 개념상의 요소로 점, 선, 면 등을 말한다. 아무리 작은 점이나 선이라도 면적이 없는 점으로만 존재하거나 절대적인 선으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의 눈이 어떤 대상을 지각할 때 그 주변 대상과의 관계

와 관련지어 지각하게 되므로, 하얀 종이 위의 글자가 점으로 지각되기도 하고, 글줄이 선으로, 단락은 면으로 지각되기도 한다. 이 경우 글줄의 집합체가 가지런하면 직사각형의 면으로 지각되고, 무질서하게 정렬될 경우 다각형의 면으로 지각된다. 이처럼 캘리그래피에서 점, 선, 면은 다양한 무게, 크기, 형태를 갖고, 정교하고 예민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개념상의 요소라고 할 수 있다.²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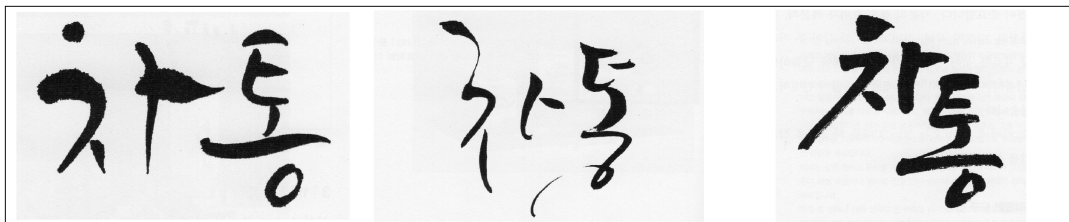
② 시각요소

시각요소란 개념요소를 가시화할 때 수반하는 것으로 글자 자체의 의미까지도 눈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요소이다.

가. 형(Shape)

글자의 기본적인 형태는 사회적인 약속으로 이를 변형하거나 왜곡하는데 제약이 따르지만 작가는 자신의 의도를 표현하기 위해 글꼴의 전반적인 느낌이나 글자의 경사, 너비, 형태 등을 ‘내용전달’이라는 문자의 기본적 기능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변형시킬 수 있다.

<그림 12> 글자의 형태 변형



출처: 왕은실 캘리그래피(2013),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 캘리그래피」, 길벗, p. 3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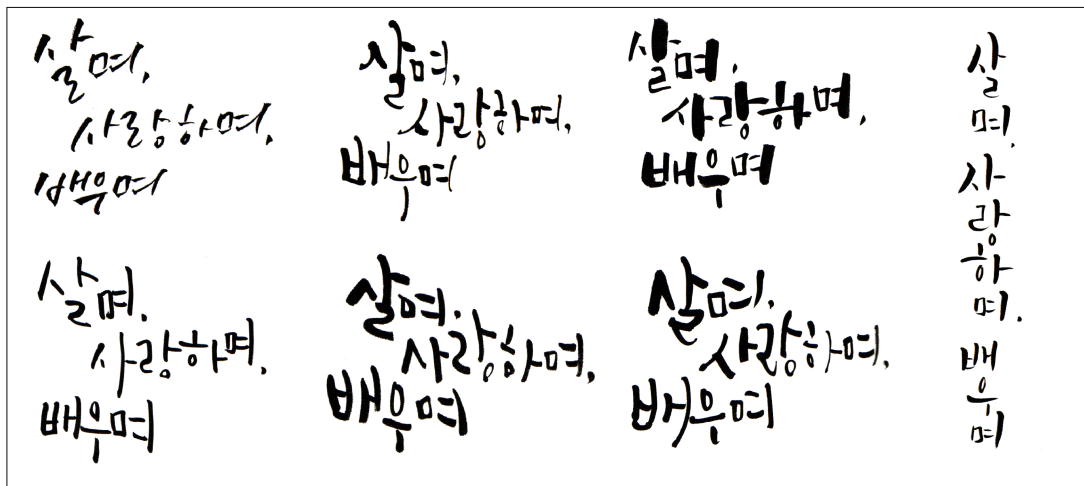
<그림 12>의 첫 번째 캘리그래피는 ‘차’에서 ‘ㅊ’의 가로획을 찢은 모양으로 변형하여 이미지화 하였다. 또 두 번째 캘리그래피는 가볍고 상큼한 차의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차’라는 글자를 얹어 떨어지는 느낌처럼 표현하였고, ‘통’에서 ‘ㅇ’을 왼쪽으로 쭉 뺀어서 통통 튀는 느낌을 표현했다. 세 번째

29) 서승연 외 2인(2004), 「타이포그래피 천일야화」, 안그래픽스, pp. 68-69.

캘리그래피는 ‘차’의 받침이 없고 ‘통’의 받침이 있어 ‘통’이 상대적으로 크게 보이는 것을 고려해 ‘차’의 끝 부분을 왼쪽으로 길게 쪽 빼어 ‘통’과 시각적 균형을 맞춘 것을 볼 수 있다.³⁰⁾

또한 이러한 글자의 경사, 너비, 형태 등을 달리하면 글꼴의 전반적인 느낌이 바뀌고, 글줄의 배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형태로 지각되기도 한다.

<그림 13> 글꼴 및 글줄의 형태 변형



출처: 왕은실 캘리그래피(2013),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 캘리그래피」, 길벗, pp. 272-2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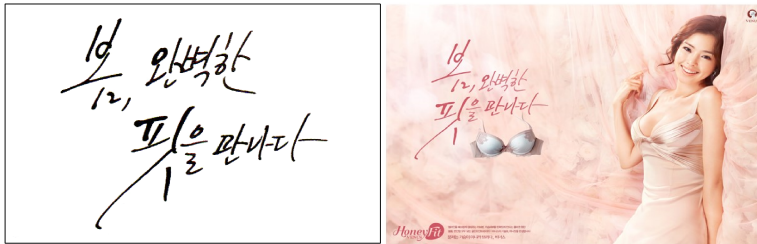
<그림 13>은 획의 기울기 및 두께에 변화를 주어 전체적인 글꼴의 느낌이 모두 다르다. 또 이렇게 글줄이 많아질 경우 글줄의 배열에 변화를 주어 다른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 다만 글자 수가 많을 때 글자의 형태에서 많은 변형을 줄 경우 다소 산만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변화를 줄 때 모음 획의 형태와 기울기를 같게 하는 등 통일적 요소가 수반되어야 한다.

나. 크기

크기는 상대적 요소로 다른 구성요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된다. 주로 어떤 요소를 강조하고 싶거나 다른 요소와의 조화를 고려할 때, 크기 변화를 고려하게 된다.

30) 왕은실 캘리그래피(2013), 전제서, p. 316.

<그림 14> 글자 크기의 대비효과



출처: 왕은실 캘리그래피(2013),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 캘리그래피」, 길벗, pp. 259-260.

<그림 14>의 캘리그래피를 보면 ‘봄, 완벽한 핏을 만나다’에서 ‘봄’과 ‘핏’을 다른 글자들보다 크게 써서 강조하고 있다. 이를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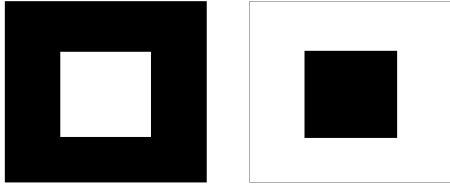
련 이미지에 적용한 것을 보면 화면전체에서 인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캘리그래피보다 크다. 이에 캘리그래피의 ‘봄’과 ‘핏’의 크기에 변화를 주어 글자들 간에 대비를 보다 극명하게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큰 이미지와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처럼 물리적인 크기 차이는 화면 안에 두 요소만 존재할 경우 요소들 간에 위계를 나타내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세 요소 이상이 존재할 경우 극명한 대비감을 통해 제 3요소와의 물리적 무게감의 차이를 상쇄시키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화면에 여러 요소가 사용될 경우 이들 간의 크기 요소를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 색

일반적으로 색은 명도, 채도, 색상의 3가지 속성을 지닌다. 색은 색이 가지는 고유한 값인 물리색과 눈으로 지각한 값인 지각색으로 구분된다. 이때 지각색은 물리색에 영향을 끼치는 환경과 주변색의 간섭에 따라 다르게 지각된다. 여기에는 항상 비례라는 변수가 작용하는데, 이는 두 가지 색 사이에서 발생하는 긴장감이 원천적으로 색 면적의 비례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³¹⁾ 따라서 글자의 크기와 간격, 여백을 고려한 색채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글자는 상대적으로 큰 면적이자 인접한 바탕색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31) 서승연 외 2인(2004), 전계서, p. 72.

<그림 15, 16> 색의 확산과 축소의 착시현상과 광고에 적용된 예



출처: 이규복(2015), 「캘리그래피 교과서」, 안그래픽스, p. 72.

출처: 왕은실 캘리그래피(2013),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 캘리그래피, 길벗, p. 270.

<그림 15>를 보면 같은 크기의 사각형임에도 불구하고 왼쪽의 검정 바탕에 흰 사각형은 흰 바탕의 검정 사각형보다 더 크게 느껴진다. 따라서 <그림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두운 배경 이미지 위에 밝은 색으로 캘리그래피 작업을 할 경우 획의 굵기가 굵어 보여 둔탁한 느낌을 줄 수 있으므로 글자의 두께를 조정하는 것이 좋다.

<그림 17> 농담



우리나라 전통서예의 주재료인 ‘먹’은 명도 차이, 즉 ‘농담효과’를 통해 깊이를 표현하는데 적합하고 이는 보는 이로 하여금 진한 여운을 느끼게 해준다. <그림 17>은 이러한 먹의 농담을 통해 깊이감을 잘 표현하고 있다. ‘봄’이라는 글자를 화분으로 이미지화하고, 농담을 통해 꽃과 화분에 입체감을 부여해 작가가 의도하는 봄의 이미지가 잘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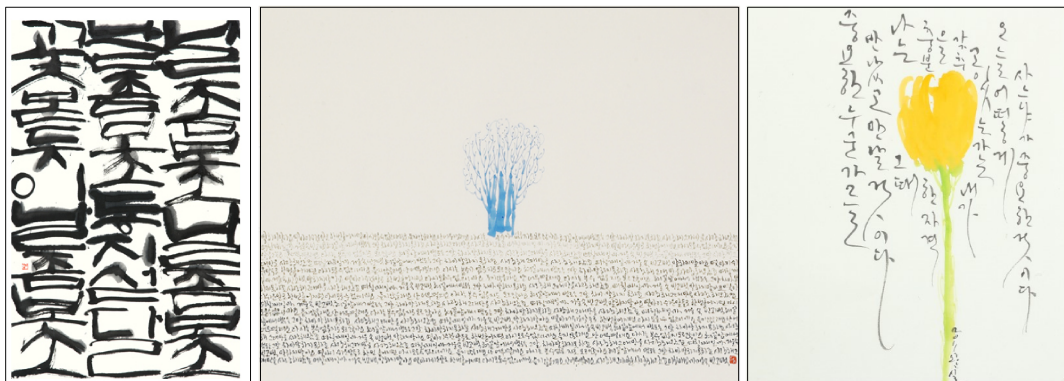
출처: <http://www.sooltong.co.kr/>

라. 질감

질감이란 물체의 표면을 만질 때 느껴지는 촉각을 말하지만 캘리그래피에서는 시각을 통해 느껴지는 ‘잠재적 촉각’을 의미한다. 이는 구성요소들의 거친 정도와 섬세함, 전체적인 규칙성과 불규칙성에 기인한다.

캘리그래피에는 이러한 질감을 이해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먼저 개별 글자가 글줄로 반복됨으로써 저절로 나타나는 촉각적 질감이 있다. 이때 사용된 글자들은 각기 고유한 속성에 따라 질감의 정도가 서로 다르다.

<그림 18> 글꼴 고유의 속성과 글줄 배열에 따른 질감 차이



출처: <http://www.simwha.kr/>, 왕은실 캘리그래피(2013),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 캘리그래피」, 길벗, pp. 14, 17.

<그림 18>을 보면 3가지 캘리그래피 모두 글씨에서 느껴지는 질감이 다르다. 직선과 크기가 강조된 첫 번째 글줄의 경우 거칠고 둔탁한 느낌이 강한 반면 두 번째 글줄의 경우 곡선이 강조된 글꼴과 작은 글씨가 반복적으로 나타나 여성적인 부드러움과 섬세함이 느껴진다. 세 번째 글줄은 첫 번째, 두 번째 글줄과 달리 크기와 글줄의 배열에서 불규칙함이 두드러진다. 이런 불규칙함은 잘 다듬어지지 않은 표면처럼 거칠게 느껴질 수 있는데 곡선이 강조된 글꼴 형태와 담묵 사용이 주는 부드러움이 이를 상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방법으로는 먹의 농도, 필압, 필속과 표현 도구 및 표현 재료에 따라 글자의 획 속에 채워지는 질감이 있다.³²⁾

32) 서승연 외 2인(2004), 전계서, p. 73.

<그림 19> 표현 방법과 표현 도구에 따른 질감 차이



출처: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GltY&articleno=6659055,
<http://www.sooltong.co.kr/>, 김종건(2009), 「The KKOT」, 필묵

<그림 19>의 ‘엄마’는 마치 글자가 아직도 물을 머금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이는 물의 농도를 섬세하게 조절하고, 붓을 살살 굴리며 천천히 썼으리라 짐작된다. 이러한 방법은 작가의 의도를 매우 잘 전달하지만 뒤로 갈수록 가독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이와 같은 캘리그래피는 가독성과 주목성을 증시하는 광고나 상품로고로는 적당하지 않으나 작가의 감성을 극대화하여 표현해야 하는 작품으로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이와 달리 ‘비’는 농묵으로 빠르고 세게 눌러써서 갈필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시원하게 내리는 비의 느낌을 잘 표현하였다.

캘리그래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구는 서화용 모필(毛筆)이다. 산양의 털로 만든 양호필에서 태아의 머리털로 만든 태모필에 이르기까지 종류가 매우 다양한데 모의 종류에 따라 부드러움이나 탄력성 달라 여러 표현이 가능하다. 또한 모의 길이에 따라 변화의 폭이 달라져 어떤 길이의 붓을 선택하는지도 영향을 준다. <그림 19>의 ‘꽃’은 닭털붓으로 쓰여 졌는데, 닭털의 고르지 못한 길이와 결이 먹을 균일하게 머금지 못해 거친 느낌이 고스란히 표현되었다. 이는 마치 강한 바람에 흔들리는 꽃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붓 이외의 표현 도구로는 연필, 펜, 붓펜, 볼펜, 색연필, 사인펜, 매직, 크레용, 롤러, 마스킹테이프 등을 사용하기도 하고 면봉,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세미, 스펀지, 칫솔, 나무뿌리와 같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다양한 질감을 가진 도구 및 재료가 두루 사용될 수 있다.

<그림 20> 다양한 표현 도구에 따른 질감 차이



출처: 이규복(2008), 「캘리그래피」, 안그래픽스, p. 179, 김종건(2009), 「The KKOT」, 필묵, 왕은실 캘리그래피(2013),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 캘리그래피」, 길벗, p. 86.

<그림 20>의 영화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포스터의 캘리그래피는 부러뜨린 나무젓가락으로 쓰여 졌다. 나무가 부러지면서 생기는 다양한 너비의 면과 먹을 잘 흡수하지 못하는 나무젓가락의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다. ‘꽃’은 붓, 롤러, 종이테이프를 같이 사용하여 표현한 것으로 여러 가지 표현 도구의 질감 대비가 재미있게 느껴진다. 또 이러한 도구 못지않게 종이 역시 질감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세 번째 사진에서처럼 우리가 캘리그래피에 많이 사용하는 화선지, 이합지, 도화지 등의 종이는 먹을 흡수하는 정도가 각각 다르다. 화선지의 경우 번짐이 많아 획들 간의 경계가 불분명한 반면 이합지의 경우 그 정도가 덜하고, 도화지는 획들 간 경계가 뚜렷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작가의 표현 의도에 적합한 재료를 선택하여 미리 구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③ 상관요소

상관요소란 실체화된 시각요소에 영향을 끼치는 부가적인 외적 환경을 말한다.

가. 공간

공간은 구성요소들 간의 간격을 말하기도 하고 지면상에 의도적으로 비워 놓는 여백을 말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글자 내부의 공간, 글자 사이, 단어 사이, 글줄 사이, 여백 모두를 지칭한다. 때로는 차원 혹은 깊이로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차원이란 보는 이로부터의 거리감으로 2차원의 평면공간에서 가상의 차원을 성취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시각요소의 크기를 달리하는 방법이나 먹의 농

담을 활용하여 깊이감을 주는 방법이 있다. 이때 작은 것은 후퇴해 보이고 큰 것은 진출해 보이며 색이나 톤이 추가되면 더욱 극대화된다. 밝고 차가운 색은 후퇴해 보이는 효과가 있고, 어둡고 따뜻한 색은 진출해 보이는 경향이 있다.³³⁾

하나의 글자를 쓸 때는 초성, 중성, 종성의 조화만 고려하면 되지만 두 글자 이상일 경우 글씨들 간의 조합도 고려해야하는데 이를 장법(章法)이라고 한다.

<그림 21> 글자 사이의 다양한 공간



출처: 왕은실 캘리그래피(2013),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 캘리그래피」, 길벗, p. 107, <http://www.sooltong.co.kr/>, <http://storyball.daum.net/episode/12262>

<그림 21>을 보면, ‘연필’의 획 사이에 작은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다. 다른 공간들과 달리 ‘ㅇ’에는 동그라미가 두 개가 그려져 있지만 획들 간에 불균형은 느껴지지 않는다. 이것은 ‘ㅇ’에 비해 ‘표’에 상대적으로 획이 많기 때문에 그러하다. 따라서 공간은 일률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공간에서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늘 똑같은 공간만을 고집하는 것은 안정적이긴 하나 지루함을 느끼게 한다. 이럴 때는 초성, 중성, 종성의 크기를 변화시킨다거나, 글씨 쓰는 획순을 바꿔본다거나 익숙하지 않은 손으로 글씨를 써보는 방법 등을 통해 다양한 공간을 실험해보는 것이 좋다.³⁴⁾ ‘흙’은 초성, 중성, 종성의 크기 변화를 통해 역동적인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고, ‘원손고백’은 익숙하지 않은 손으로 글씨를 씌으로써 의도치 않은 공간들이 연출되면서 다양한 재미를 느끼게 한다.

캘리그래피에서는 글자 사이의 공간만큼이나 여백이 중요하다. 글자가 그 글자를 감싸고 있는 여백과 함께 결합되어 표현되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33) 서승연 외 2인(2004), 전게서 p. 74.

34) 왕은실 캘리그래피(2013), 전게서, pp. 106-108.

<그림 22> 공간의 여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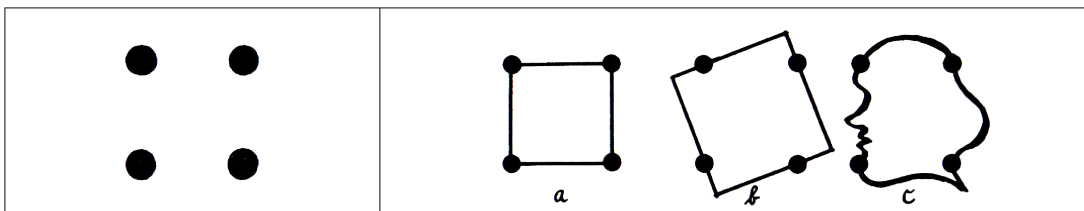
출처: <http://www.sooltong.co.kr/>

<그림 22>를 보면 ‘숲’이라는 글자 위로 드러난 텅 빈 여백의 공간이 마치 산 위로 멀리 펼쳐져 있는 하늘을 상징하는 것 같다. 이는 동양 미술에서 여백이 단지 비어있음을 뜻하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 이는 게슈탈트 심리학의 단순성의 법칙과 관련이 있다.

<그림 23>의 가장 첫 번째, 윤곽선이 없는 4개의 점을 볼 때, 우리는 오른쪽 a, b, c도형 중 대부분 a의 사각형을 떠올리지 b와 c의 형태를 떠올리지 않는다. 이는 자극 패턴에 의해 드러나

는 결과적인 구조는 주어진 조건이 허락하는 한 가급적 단순한 형태로 보여 지려고 한다는데 그 이유가 있다.³⁵⁾ 따라서 ‘숲’이라는 큰 글자와 숲의 중성 ‘T’ 밑으로 쓰인 글자들은 하나의 밀도 높은 다각형 덩어리로 지각되고 상대적으로 공허하고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배경은 멀어보이게 된다.

<그림 23> 단순성의 법칙



출처: 루돌프 아른하임(Rudolf Arnheim, 2010), 김춘일 역, 「미술과 시지각」, 미진사, pp. 57-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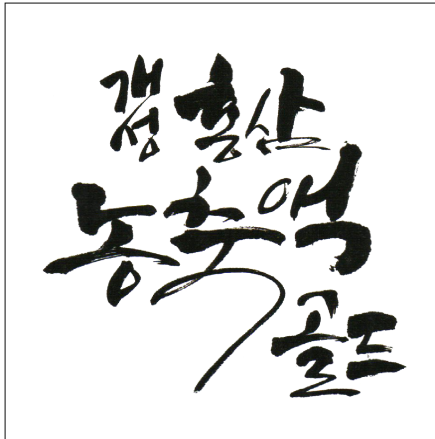
나. 무게

무게감에는 실제 느낄 수 있는 물리적 무게감과 심리적 무게감이 있는데, 시각 표현에서는 심리적 무게감에 따라 구성요소 간의 중요도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굵은 획이 가는 획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는 심리적 특성 때문에 획이나 글자 사이에 위계적 표현이 이루어지기도하고, 같은 무게의 글자는 같은 정도의 중요도로 여겨져 요소 간의 카테고리 표현도 가능해진다.³⁶⁾

35) 루돌프 아른하임(Rudolf Arnheim, 2010), 김춘일 역, 「미술과 시지각」, 미진사, pp. 57-59.

36) 강성중 외 1인(2008), 「정보디자인 교과서」, 안그래픽스, p. 167.

<그림 24> 글자의 심리적 무게



출처: 왕은실 캘리그래피(2013),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 캘리그래피, 길벗, p. 311.

<그림 24>를 보면 ‘홍’ 자에서 힘이 느껴지도록 시작하는 부분을 두껍게 쓰면서도 둔탁한 느낌을 피하기 위해 획의 강약을 눈에 띄게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홍삼 농축액’ 을 주목받게 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개성’ 과 ‘골드’ 는 조금 작게 쓰고 획들의 굵기 대비가 심하지 않도록 고려하여 썼음을 알 수 있다.³⁷⁾ 이 때 보는 이는 ‘개성’ 과 ‘골드’ 가 화면 중앙으로부터의 위치나 크기가 비슷하여 비슷한 정도의 중요도를 가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홍삼 농축액’ 이라는 글자들은 ‘개성’ 이나 ‘골드’ 에

비해 굵기 및 길이의 대비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홍삼 농축액’ 의 다섯 글자 중 가장 크기가 큰 ‘축’ 자를 위시해 ‘홍’ 의 초성, ‘농’ 의 초성과 중성, ‘액’ 의 중성과 종성의 두께를 강조함으로써 각 글자들 간에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시키면서 심리적 무게감이 ‘축’ 자에만 기울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심리적 무게감에는 글자의 물리적인 크기 외에 다른 글자와의 위치, 획의 굵기 및 대비의 차이 등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여러 요소들을 모두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다. 방향

글자의 본질은 가지런히 늘어선 수평적 방향성(좌에서 우로)을 견지하고, 스스로 점유하는 위치나 고유한 형태감에 따라 방향을 느끼게 하는 특성이 있다. 또한 이웃한 글자나 주변 요소들의 간섭현상에 영향을 받거나, 각도가 달라지거나 회전하면서 여러 종류의 에너지가 탄생하기도 한다.³⁸⁾

37) 왕은실 캘리그래피(2013), 전게서, pp. 310-311.

38) 서승연 외 2인(2004), 전게서, 안그래픽스, p. 74.

<그림 25> 글자의 방향성



출처: <http://www.simwha.kr/>, 왕은실 캘리그래피(2013),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 캘리그래피」, 길벗, pp. 341-342.

<그림 25>의 ‘폼’은 한 개의 글자가 차지하는 무게감이 커서 단일 글자가 화면의 방향을 거의 결정짓고 있다. ‘폼’의 초성, 중성, 종성이 각각 조금씩 다른 방향성을 띠면서 화면 안에 역동적인 움직임 만들어내고 있는데, 자칫 산만해 질 수 있는 구성에서 축을 잡아 줌으로써 균형을 잃고 있지 않다. 이는 마치 권투시합에서 펀치를 맞고 쓰러지는 사람의 머리, 몸통, 다리를 연상시키는데, 중성 ‘나’로부터 시작되어 글꼴 밖으로 흩어지는 점들의 방향은 핏자국 혹은 땀방울의 궤적을 연상시켜 화면 전체에 리듬감 더하고 있다.

이처럼 초성, 중성, 종성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 획의 변화를 통해 글줄에 통일된 방향성을 줄 수도 있다. ‘세계로 나아간 10년, 세계로 이끌어갈 10년’이라는 텍스트는 ‘성장’과 관련된 내용이고 사용될 이미지가 좌측 아래쪽에서부터 화면 중간의 오른쪽으로 쭉 뻗어나가는 큰 곡선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미지와의 조화를 고려하고, 이끌어 간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 시안 1에서는 ‘나’와 ‘이’의 세로획을 길게 빼어 뻗어 나가는 느낌을 나타내고자 했다. 시안 2에서는 ‘나’를 왼쪽으로 쭉 뻗어서 새가 높이 날아가는 느낌을 주고 ‘년’에서 ‘ㄴ’ 역시 새의 오른쪽 날개처럼 표현했다.³⁹⁾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진 글씨는 불안정하고 동적인 느낌을 주어 주로 힘 있는 글씨나 경쾌하고

39) 왕은실 캘리그래피(2013), 전게서, pp. 340-342.

발랄한 글씨를 표현하고자 할 때 많이 사용한다. 다만 세로획의 기울기가 심할 경우 글씨가 납작해 보이는 역효과가 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모음 ‘ㅏ’의 경우 마지막 획은 점보다 획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는 편이 동세를 더 극대화 할 수 있다.⁴⁰⁾ 이처럼 화면에서의 방향성은 어떤 운동감을 만들어내는데, 이는 어떤 힘에 의해 글자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지각되어 화면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주목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라. 위치

위치란 전체 속에 존재하는 각 요소의 자릿값으로, 일반적으로 구성 요소가 화면의 중앙에 있으면 엄숙하고 확신에 차보이며, 화면의 가장자리 또는 외곽선에 맞닿아 있으면 어설피고 신뢰감이 떨어져 보인다. 이렇듯 위치는 보는 이가 디자인을 해석하는 데 의미의 선입견이나 정서적 이해를 지배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⁴¹⁾

<그림 26> 화면에서 글자의 위치



출처: 왕은실 캘리그래피(2013),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 캘리그래피」, 길벗, p. 298, <http://book.naver.com/>

<그림 26>에서 보듯이 이미지의 유무, 이미지의 크기 및 방향, 텍스트의 길이에 따라 캘리그래피의 위치가 달라진다. ‘소장유물’의 경우 이미지 없이 하얀 화면 위에 검정색 글씨로 쓰여 졌다. 하지만 화면 중앙에서 먼 위치에 있어 화면을 지배한다는 느낌보다는 하얀 화면과 빨간 글씨와 대등하게 존재하는 느낌

40) 이규복(2015), 「캘리그래피 교과서」, 안그래픽스, p. 139.

41) 서승연 외 2인(2004), 전게서, p. 75.

이 강하다. 이와 달리 ‘나의 삼촌 브루스 리’의 경우 화면의 절반에 가까운 부분을 캘리그래피가 채우고 있지만 가장자리와 맞닿아 있는 글자들이 어딘지 완성되지 못한 느낌을 주는데, 이는 자신감은 있으나 어딘가 미숙한 책 속 주인공의 성격을 반영하고자 한 의도로 읽혀진다. 이러한 어설피고 불안한 느낌은 ‘스왈로테일’과 ‘서얼단상’으로 갈수록 심해진다.

마. 시간

시간은 물리적으로 표준화된 객관적 시간과 개인마다 다르게 느끼는 주관적 시간으로 나눌 수 있다. 캘리그래피에서 시간의 개념은 글자를 따라 이동하는 시선에 의해 진행되는 시각적 연속성 또는 시각적 잔상으로 보는 이로 하여금 시각적 통일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가 된다.⁴²⁾

<그림 27> 글자의 시간성



출처: <http://www.sooltong.co.kr/>

<그림 27>은 캘리그래피 강병인이 쓴 캘리그래피로 각각 ‘봄 씩이나다’, ‘꽃 피어나다’라는 제목의 작품이다. 두 작품 모두 오른쪽의 얽히고설킨 선들과 글자의 마지막 획이 뒤섞여 있어 원래대로라면 초성, 중성, 종성의 순으로 읽혀야 할 글자들이 중성, 중성, 초성의 순으로 읽히고 있다. 이것은 작품제목이 ‘씩이나다’와 ‘피어나다’라는 동사를 포함하고 있어 연상되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이 어떤 자극 패턴이든 단순하게 보려는 경향이 있고, 무질서 속에서 규칙을 찾으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우리의 시선도 복잡함에서 단순함으로 나아간다는 점에 기인한다. 따라서 시간 요소는 글자가 갖는 ‘좌에서 우’ 혹은 ‘위에서 아래’라는 기본적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복잡함에서 단순함을 찾으려는 시지각 원리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또 두 작품

나다’와 ‘피어나다’라는 동사를 포함하고 있어 연상되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이 어떤 자극 패턴이든 단순하게 보려는 경향이 있고, 무질서 속에서 규칙을 찾으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우리의 시선도 복잡함에서 단순함으로 나아간다는 점에 기인한다. 따라서 시간 요소는 글자가 갖는 ‘좌에서 우’ 혹은 ‘위에서 아래’라는 기본적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복잡함에서 단순함을 찾으려는 시지각 원리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또 두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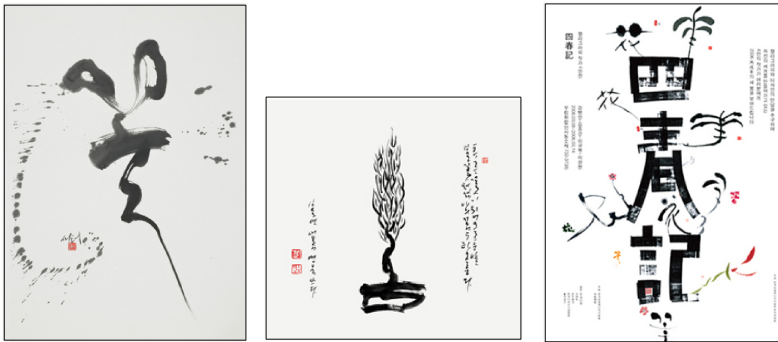
42) 서승연 외 2인(2004), 전게서, p. 75.

모두 획의 굵기 변화가 심하지 않아 그 시간의 흐름이 매우 고요하게 느껴진다. 여기서 획의 굵기에 심한 변화가 있다면 시간의 흐름도 다르게 느껴질 것이다.

바. 도형

여기서 말하는 ‘도형’이란 글자와 캘리그래피의 효과를 강화하는 형, 심벌, 이미지 등의 요소를 말한다.⁴³⁾

<그림 28> 캘리그래피의 도형 요소



출처: <http://www.sinwha.kr/>, <http://www.sooltong.co.kr/>, <http://philmuk.co.kr/>

<그림 28>의

‘꽃’은 먹을 뿌려 자연스럽게 생기는 점의 궤적을 통해 화면 전체에 큰 움직임은 부여했다. 마치 꽃들이 만발하는 모

습에서 느낀 생명력을 ‘꽃’이라는 단어에서 뿜어져 나가는 먹을 통해 표현한 것처럼 느껴진다. 그 옆의 ‘봄’은 초성 ‘木’에 나뭇가지를 상징하는 획들을 더하여 ‘봄’이라는 글자가 한 그루의 나무처럼 보인다. 오른쪽의 ‘사춘기(四春記)’는 4개의 봄에 대한 기록이라는 뜻처럼 봄을 상징하는 이미지들을 글자와 함께 형상화함으로써 아기자기한 느낌을 주고 있다.

(2) 표현원리

① 통일과 변화

통일(unity)은 화면구성요소들의 조형적 결합과 질서를 말한다. 이는 공간 전체를 하나로 보이게 해 내용 파악을 쉽게 하지만 지나칠 경우 딱딱하고 무미건조하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변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각 요소 간에 공통

43) 서승연 외 2인(2004), 전제서, p. 75.

<그림 29> 통일과 변화의 원리



출처: <http://www.simwha.kr/>, <http://movie.naver.com/>

점과 차이점이 공존하게 하여 대비효과를 사용한다면 흥미 있는 레이아웃을 만들 수 있다.⁴⁴⁾ <그림 29>에서 왼쪽 캘리그래피는 멀리서 무심히 바라보면 ‘바람도 살랑 구름도 몽실’이라는 녹색 글자가 읽힌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람도 살랑 구름도 몽실 이내 문전에 임도 살

랑’이라는 문구가 보인다. 이 작품에서는 똑같은 문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통일성을 주면서도 글자의 중첩이라는 방법을 통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자칫 어지럽고 산만할 수 있는 표현 방법인데 글자의 크기 및 형태와 색상, 채도의 차이를 통해 각각의 글씨에 통일성을 부여함으로써 극복하고 있다. 캘리그래피가 이미지와 함께 사용될 경우 고려해야 할 부분이 보다 많아질 수 있는데 <그림 29>의 오른쪽 캘리그래피의 경우 이미지의 색채를 단순하게 처리하고 글자의 중요도에 따라 다른 색상과 채도를 사용하여 통일성과 변화를 모두 꾀하고 있다.

② 균형과 율동

시각적 균형은 비대칭 구성에서 얻어지는 동적균형(dynamic balance)과 대칭 구성에서 이루어지는 정적균형(static balance)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레이아웃에서 둘 이상의 요소에 시각적으로 힘이 분산되어 있으면 안정감을 주지만 똑같은 무게와 형태로 대칭을 이루면 정지된 느낌이 강해 지루한 느낌을 줄 수 있다. 반대로 비대칭 균형은 물리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두 면이 시각적으로 균등한 것으로, 화면에 동적인 긴장감을 주고 개성적인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점·선·면에 의해 생기는 기울기, 색채구별을 통한 면적대비, 이미지 변화를 통한 공간배열 등을 통해 나타난다. 이는 방향성이 필수적으로 따르는데 같은 요소의 반복, 형태나 선의 연속, 단계적인 리듬의 점이 등으로 만들어진다.⁴⁵⁾

44) 홍영일(2010), 「디자인을 완성하는 레이아웃과 그리드」, 미진사, pp. 118-120.

45) 상계서, pp. 128-136.

<그림 30> 균형과 율동의 원리



출처: <http://www.sooltong.co.kr/>

<그림 30>은 강병인의 ‘옷’ 라는 작품이다. 그에 의하면 ‘○+T+人= 옷’ 자를 가수 사이의 말춤을 연상하여 표현한 작품이라고 한다. 이 캘리그래피는 8개의 ‘옷’ 자를 형태를 달리하여 배열하였는데, 크기와 명도의 변화를

통해 화면에 단계적인 리듬감을 부여하였다.

이처럼 좋은 캘리그래피를 쓰기 위해서는 시각디자인의 표현요소를 기본으로 서예의 운필 및 표현재료의 특징을 고려하여 목적과 의도에 맞는 표현도구 및 표현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이 때 표현원리에 바탕을 두고 다른 요소와의 어울림을 고려하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2) 캘리그래피의 활용

마셜 맥루한(Marshall McLuhan, 1911-1980)은 ‘사회란 커뮤니케이션의 내용보다는 수단이 되는 미디어의 특성에 의해 형성된다.’ 라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메시지의 내용이 미디어의 형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의 형식이 메시지를 결정짓는 것이다.⁴⁶⁾ 이에 미디어의 형식에 따라 사용되는 캘리그래피가 각기 어떤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1) 포스터

캘리그래피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포스터다. 포스터란, 전달할 내용을 일정한 크기의 화면에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표현하는 선전광고 매체다.⁴⁷⁾ 포스터가 부착되는 장소가 대부분 공공장소나 길거리와 같은 사람들의 움직임이 빠른 장소인 점과 물리적으로 매우 큰 간판이나 화려한 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와 같은 공간에 놓인다는 점을 감안할 때, 포스터는 짧은 시간 안에

46) 강성중 외 1인(2008), 전계서, p. 127.

47) 중앙일보사(1989), 전계서, pp. 430-432.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아 끌 수 있도록 주목성이 높아야 한다.

<그림 31> 포스터에 사용된 캘리그래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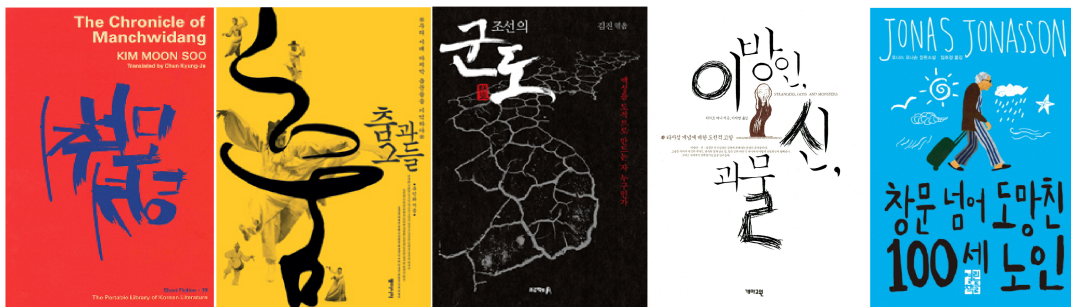
출처: <http://movie.naver.com/>, 왕은실 캘리그래피(2013),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 캘리그래피」, 길벗, p. 349, <http://www.nfm.go.kr/>

<그림 31>에서 보듯이 포스터에서 텍스트의 정체성은 사용된 이미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영화 ‘타짜’의 포스터에서 ‘큰거 한판에 인생은 예술이 된다!’는 작은 글씨의 문구는 이미지를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오른쪽의 ‘타짜’라는 캘리그래피는 텍스트로서 읽히기보다 이미지의 느낌을 살리기 위한 상징적 요소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서울국제공연예술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화면상단에 영문폰트로 차분히 설명하고 있는 느낌과 대조적으로 오른쪽 하단의 캘리그래피는 이미지와 함께 공연의 성격을 나타내는 상징적 요소로 기능하고 있다. 세 번째 사진전 ‘일상’의 포스터 역시 규칙적인 타이포그래피로 포스터를 설명하는 동시에 ‘일상’이라는 캘리그래피에 이미지의 느낌을 담아 표현했다. 이처럼 포스터에 쓰이는 캘리그래피는 복잡한 환경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한 눈에 잡아당기기 위해 가독성 보다는 주목성에 집중하면서 이미지의 느낌을 극대화하는 상징적 역할을 하고 있다.

(2) 북커버

북커버는 포스터와 달리 서점이라는 장소에 놓인다는 점과 ‘글자’를 매개로 소통하는 매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서점가에 온 사람들은 비교적 많은 시간을 들여 책들을 둘러보게 되고, 이러한 이유로 가독성이 높은 북커버보다는 책의 내용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캘리그래피가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그림 32> 북커버에 사용된 캘리그래피



출처: <http://navercast.naver.com/>, <http://book.naver.com/>

<그림 32>에 제시된 북커버의 캘리그래피를 살펴보면 마치 아이가 쓴 듯 어눌해 보이는 글씨도 보이고, 신경증적 불안을 겪는 사람이 쓴 것 같은 글씨도 보인다. 앞서 살펴보았던 정병규의 북커버 디자인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북커버에 사용된 캘리그래피는 포스터에 쓰인 캘리그래피보다 형식이나 글꼴스타일에서 더 자유분방해 보인다. 또한 이미지와 함께 사용된다는 점은 포스터와 같지만 이미지와 텍스트의 비중이 거의 비슷하거나 텍스트가 더 높은 편이다. 노란 표지의 ‘춤’은 이미지 위에 글자를 겹쳐버림으로써 이미지가 캘리그래피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포스터와 같이 깔끔한 타이포그래피의 문구를 사용해 책에 설명의 기능을 추가하기도 하지만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처럼 캘리그래피가 이미지와 함께 일러스트의 기능을 극대화하기도 한다. 또한 실사이미지보다는 일러스트나 캘리그래피를 통해 상상력을 자극하는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

(3) 패키지

패키지에서 캘리그래피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야가 바로 식품패키지다. 최근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인 것을 중요시하는 참살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친환경적 이미지를 전달하는 로고나 식품패키지가 늘어나고 있다. 기존의 딱딱하던 서체에서 벗어나 캘리그래피를 통해 상품패키지를 리뉴얼함으로써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힘쓰는 기업이 많아지는 것도 이러한 현상에서 비롯되었다.

<그림 33> 패키지디자인에 사용된 캘리그래피



출처: <http://navercast.naver.com/>, <http://mdesign.design.co.kr/>, <http://happy.design.co.kr/>

<그림 33>에서 아침햇살, 술의 눈, 매화수, 백세주가 상품패키지를 리뉴얼하면서 캘리그래피를 사용해 친환경적 이미지를 강조한 대표적인 예다. 이는 환경 파괴로 바른 먹거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면서 인공적인 느낌을 없애고 자연에서 자란 안전한 식품임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결과로, 생명력의 근원인 음식을 설명하기에 타이포그래피보다는 캘리그래피가 적합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또한 제품명의 경우 제품명 자체가 하나의 이미지로 각인될 수 있어야 하는데 ‘농심 신라면’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신라면의 경우 20년 이상 캘리그래피를 사용함으로써 보는 이들로 하여금 캘리그래피 자체가 하나의 로고로 인식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들을 보면 식품패키지의 경우 캘리그래피의 자연스러움이나 소박함을 강조하는 서체가 유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음

식의 성격을 고려하여 매우 음식임을 표현하고자 할 경우 신라면과 같이 굵고 강렬한 서체를 사용해 갈필로 표현하기도 한다.

(4) 광고

최근의 광고디자인은 물건의 기능적인 측면을 소개하는 것에서 확장하여 사람들의 일상과 라이프스타일을 해석하고 이를 반영하는 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그림 34> 광고에 사용된 캘리그래피



출처: <https://www.youtube.com/>

<그림 34>의 삼성카드 광고는 이러한 경향을 반증하는 대표적인 예다. 현대인들이 도시생활에서 겪는 혼란 감정을 대중에게 친숙한 배우의 나레이션과 느낌을 담은 손글씨로 표현함으로써 공감이 더 잘된다. 문자는 구술언어의 표상인 동시에 구술언어가 갖는 역동성과 다양성, 동시성을 추상화하고 억압한다. 이 때문에 우리가 사소한 일상대화에서 경험할 수 있는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나 구체성을 기계적인 타이포로는 구현하기 어렵다.⁴⁸⁾ 오히려 아무런 꾸밈없이 솔직하게 써 내려간 손글씨에서 이러한 문자의 추상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광고에 사용되는 캘리그래피는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이 강조되면서 아무런 격식 없이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글씨체를 그대로 차용해 사용되는 특징을 보인다.

48) 최범 외 12인(1999), 「디자인 텍스트」, 홍디자인출판부, p. 195.

(5) 방송 및 음반 타이틀

스토리가 핵심인 드라마 타이틀이나 음반의 타이틀에서도 캘리그래피를 활용한 예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방송 타이틀의 경우 드라마, 시사프로그램, 오락 프로그램 등 그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선호하는 글꼴의 분위기가 다르다. 시사 프로그램이나 역사 프로그램과 같은 진실성, 신뢰성이 중시되는 경우 글자 형태에 큰 변화 없이 힘이 느껴지도록 굵고 거친 느낌으로 쓰여 지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드라마처럼 허구성이 짙은 프로그램의 경우 등장인물들의 캐릭터를 반영하거나 드라마 내용을 반영해 캘리그래피를 제작하는 경향이 두드러져 다른 프로그램보다 글꼴의 유형이 매우 다양했다.

<그림 35> 방송 및 음반 타이틀에 사용된 캘리그래피



출처: <http://www.kbs.co.kr>, <http://www.sbs.co.kr>, <http://music.naver.com/>

<그림 35>에서 ‘착하지 않은 여자들’의 경우 캐릭터가 다른 4명의 여자들을 둘러싼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드라마다. 제목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굴곡진 캐릭터가 많아 글자의 느낌도 각이 많고, 글자의 방향과 크기도 각각 다를 수 있다. 반면 ‘괜찮아 사랑이야’의 경우 여성스러운 곡선이 강조되고 비슷한 크기와 동세를 가진 글씨로 표현돼 스토리라인을 강조하는 드라마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음반 타이틀의 경우 음악장르에 따라 선호되는 글씨체가 나뉘어 있는 듯하다. 잔잔한 선율의 발라드를 주로 부르는 가수들은 가는 펜으로 쓴 손글씨를 선호하는 편이었고, 댄스나 힙합 등 비트가 강조된 장르의 음반은 대부분 한글이 아닌 영어를 굵고 강하게 내려쓴 캘리그래피를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캘리그래피는 ‘보는 이미지’인 동시에 ‘읽는 텍스트’로 단순히 언어의 전달 기능만이 아닌 감성적이고 직관적이며 통합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다.⁴⁹⁾ 캘리그래피의 활용사례를 통해 각 매체별로 그 매개적 역할이 조금씩 다를 수 있었고, 무엇보다 캘리그래피가 시각디자인 전반에 걸쳐 폭넓게 사용되고 있어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함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사람들의 선호도가 민감하게 반영되는 디자인 분야에서 캘리그래피의 활용이 두드러지는 점은 현대인의 욕구를 캘리그래피가 충족시켜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디지털 미디어가 우리의 쓰기 활동을 대체한 순간부터 결핍된 어떤 욕구에 대한 갈망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캘리그래피를 활용한 미술수업이 이러한 창작 본능을 일깨워 학생들의 미술교과에 대한 흥미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49) 선병일 외 15인(2013), 「디자인 공감」, 두성북스, p. 103.

Ⅲ. 캘리그래피를 활용한 미술수업의 실제

지금까지 이론적 배경을 통해 캘리그래피의 현대적 의미와 그 표현 및 활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캘리그래피를 활용한 미술수업 지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캘리그래피와 미술교육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2009개정 선택교육과정 미술 창작 분석을 통해 수업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캘리그래피를 활용한 미술수업 지도방안을 구안하여 수업에 적용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캘리그래피를 활용한 미술수업을 학교현장에 적용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를 제시하였다.

1. 캘리그래피와 미술교육

사회 각 영역들이 복잡하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하는 현대사회의 특성에 따라 미술도 각 분야들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새로운 가치와 양식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에 미술교육의 방향도 달라져왔는데,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고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전개되면서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 사고력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이 요청되고 있다.

창의성에 대한 견해는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새롭고 적절하며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인간에 내재된 속성이라고 정의한다.⁵⁰⁾ 여기서 창의성이란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라기보다 기존의 것을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하고 재구성하여 조합하는 능력을 말한다. 즉 복잡다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산된 지식을 수렴하고 새로운 지식으로 확장하는 융합적인 성격의 창의력을 말한다.

50) 전태린(2010), 「함께하는 교육학4」, 마이썸, p. 131.

이러한 융합의 개념은 미술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적인 경향을 보인다.

첫째, 미술의 방법적 용어로서 사용된다. 이를테면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거나 다른 분야와 협업하기 혹은 제작 모티브를 다른 영역에서 차용해오거나 장르 간 다양한 요소들을 교류하는 것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둘째, 개념적 측면에서 주로 퓨전(fusion), 절충주의, 하이브리드(hybrid) 등의 개념과 함께 사용된다. 이는 문화 간의 이질적인 요소가 융합되어 새로운 특성을 나타내는 문화 창조라 정의하며, 이러한 문화적 퓨전 현상을 역사의 반복성, 형태의 변형성, 문화의 상호의존성으로 분류한다.

셋째,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통합의 개념으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기능의 통합’이라는 의미로 컨버전스(convergence)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디지털 컨버전스 뿐만 아니라 아날로그 컨버전스도 포함하는 개념이다.⁵¹⁾

이러한 경향의 대표적인 예가 캘리그래피다. 먼저 방법적으로 타이포그래피와 서예 간 요소들의 교류를 통해 형성됐고, 서양과 동양의 이질적인 문화적 요소가 융합되어 새로운 특성을 보이며, 디지털 기술과 아날로그 기능이 통합된 형태로 많이 활용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캘리그래피를 활용한 미술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캘리그래피를 활용한 미술교육은 인간의 창조성 발현이라는 미술의 본질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앞서 캘리그래피의 역사 속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림과 문자를 사용해 기록하고 소통하는 행위는 인간 안에 내재된 욕구의 발현이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화 통화를 하거나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무심코 손으로 글자를 쓰거나 선을 그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 또 생각이 더해지면 어떤 모양이 되고, 점차 그림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창조적 행위는 인간의 본질적인 유희행위이자 놀이다. 물론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며 문자로 기록하고 소통하는 행위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우리가 손으로 쓰고 그리던 창작행위와는 그 과정과 결과에 많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대체된 욕구에 대한 갈증을 해결하려는 듯 최근 서점가에는 손글씨 배우기와 관련된 책이나 컬러링 북이 인기를 끌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다이어리 꾸미기 열풍이 불면서 이와 관련

51) 김지인 외 2인(2011), “상호 혼성적 디자인으로서의 융합디자인 개념”, 한국디자인포럼, Vol.32, pp. 265-266.

된 상품이나 책이 다수 출판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캘리그래피를 전문적으로 배우려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관련전문교육기관이 생기고, 2014년에는 ‘한국캘리그래피디자인협회’가 사단법인이 되면서 캘리그래피 열풍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캘리그래피를 활용한 미술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인간성 회복을 위한 감성교육 차원에서 캘리그래피를 활용한 미술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시각문화 전반에 걸친 캘리그래피 열풍은 우리가 그동안 규칙적이고 기계적인 문화에 얼마나 피로해있었는지 일깨워준다. 기본적으로 문자언어는 많은 정보를 생략한다. 우리가 음성언어를 사용할 때,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거나 설명이 부족하더라도 언어의 뉘앙스와 분위기, 몸짓언어 등 상황적 맥락을 통해 적절하게 이해하게 된다. 하지만 문자언어는 주어진 텍스트만을 통해 파악해야하므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상황이나 기분이 다를 때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러한 한계를 지닌 디지털 환경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 소통의 필수요소인 공감능력의 결핍을 가져왔다. 따라서 자유로운 형태의 인간미 있는 문자를 통해 소통함으로써 메시지의 의도를 보다 명확히 전달하고 따뜻한 감성을 일깨울 수 있도록 캘리그래피를 활용한 미술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반영하듯 2009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에 따른 4종의 인정교과서는 그 비중이 상이하긴하나 모두 캘리그래피에 대해 다루고 있다. 하지만 캘리그래피를 서예의 확장적 표현활동 차원에서 다루거나 짝막하게 소개하는 정도에 그쳐 현대적 의미의 캘리그래피와 캘리그래피를 활용한 표현활동이 갖는 교육적 효과를 살리기엔 부족함이 느껴진다. 앞서 캘리그래피의 활용사례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1990년대 중반 이후 디자인 분야에 사용되었던 캘리그래피라는 용어는 더 이상 서예를 지칭하지 않으며, 디자인 콘셉트를 위해 이미지를 연상시키도록 유발하는 감성을 담은 ‘디자인적인 글씨’ 혹은 ‘디자인 요소’로서의 손글씨를 의미한다.⁵²⁾ 따라서 현대적 의미의 캘리그래피는 시각디자인을 바탕으로 서예의 기법과 재료 등을 활용한 문자조형활동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2) 이규복(2015), 전게서, p. 43.

2. 교육과정분석

우리나라 일반계 고등학교에서의 미술교육은 ‘미술을 통한 교육’으로 전인교육의 성격을 가진다. 이는 2009개정 선택교육과정 ‘미술 창작’ 과목의 목표에 잘 드러난다.

미술은 시각적 매체를 활용하는 시각 예술이며, 공간을 수단으로 하는 공간 예술이며, 조형을 방법으로 하는 조형 예술이다. 일상 언어가 소리와 말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듯 미술 활동은 조형 언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표현 양식이다. 따라서 ‘미술 창작’ 과목의 목표는 다양한 시각적, 공간적, 조형적인 매체로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는 창작 활동을 통하여 미술의 제반 현상을 이해하고, 창조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데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 목표는 다음과 같다.

가. 다양한 표현 주제와 발상 방법을 이해하고 표현한다.

나. 다양한 매체와 표현 방법을 이해하고 새로운 매체를 탐색하여 표현한다.

다. 작품을 비교 분석하고 새로운 표현에 적용함으로써 창작의 중요성을 인식한다.⁵³⁾

이를 살펴보면 미술 창작 과목은 다양한 매체와 표현 방법을 탐색하고 이해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현대미술을 포함한 미술의 제반현상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창조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데 목표를 둔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있다.

첫째, 다양한 매체와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탐색하고 시도해 볼 수 있는 교육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육시간, 미술실, 교수-학습 자료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 집중이수제의 도입으로 미술창작활동을 좀 더 깊이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전체적인 수업시수가 감소하여 미술 단원을 두루 다루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미술이 선택교과로 편성되는 등 정규교육과정에서 비중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미술실에 대한 학교시설 설비기준령의 최소기준마저 뚜렷한 이유

53) 교육과학기술부(2011), “2009개정 미술과 교육과정”, 2011-361, p. 33.

없이 사라지면서 미술실이 없는 학교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환경적 제약으로 학생들의 창의적 표현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둘째, 미술의 제반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육과정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전면개정에서 수시부분개정체제로 바뀌었으나 그 속도까지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교사는 단원 간, 영역 간, 교과 간 연계를 통하여 시대의 흐름에 맞춘 미술교육과정을 마련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학습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이는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가능한데,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입시에 대한 부담으로 긴장감이 높은데다 규격화된 교실과 강의식 수업방식에 오랫동안 길들여져 자유로운 발상과 표현활동에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교수-학습자료 및 교수방법을 마련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염두에 두고 교육과정 내용체계를 살펴보면 ‘다양한 문화적 맥락’, ‘현대적 시각에서 재해석’, ‘전통미술과 현대미술의 재료와 기법에 대한 이해·발전’, ‘새로운 매체’, ‘차이와 소통’ 등의 단어가 눈에 띈다. 이는 표현과 창작에 있어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소통의 방법으로 다양한 문화적 맥락이 고려되어야 하고, 전통미술을 현대적 시각에서 재해석하여 새로운 매체로 확장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함을 뜻한다. 또한 성취기준에서는 영역과 무관하게 ‘다양’과 ‘창의’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어 창의성 계발을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표현 주제와 발상법 및 매체의 활용에 대한 탐구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전통미술을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이를 새로운 매체를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표현 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창의적 사고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와 발상 및 매체를 탐구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차이를 인정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바탕으로 캘리그래피를 활용한 미술수업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캘리그래피의 역사를 통해 현대적 관점의 캘리그래피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다양한 표현재료와 표현방법을 탐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수자료를 준비하여 적용한다.

셋째, 여러 종류의 매체에 활용된 캘리그래피를 경험하게 하고, 이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3. 캘리그래피를 활용한 미술수업 지도방안

본 절은 캘리그래피를 활용한 미술교육의 실례로, 교육과정분석을 통해 설정한 캘리그래피를 활용한 미술수업의 방향을 바탕으로 수업지도계획을 수립하고 교수-학습지도안을 구안하였다.

수업은 제주도 제주시 J 고등학교 1학년 4학급의 학생 158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수업결과물과 수업 전·후의 설문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1) 단원의 개관

(1) 교재 및 단원명

교과서: 씨마스 고등학교 미술 창작

대단원: 매체와 표현

중단원: 평면표현Ⅱ

소단원: 글씨에 담긴 아름다움, 내용을 전달하는 디자인 1

2009개정 선택교육과정 미술 창작을 근거로 편찬된 인정교과서는 총 4종이다. 4종 교과서 모두 캘리그래피를 다루고 있으나 그 비중에는 차이가 있었다. 천재교육과 교학사의 교과서는 캘리그래피를 비교적 비중 있게 다루고 있었다. 하지만 접근 방식에서 두 교과서 모두 캘리그래피를 전통서예의 확장활동으로 다루고 있었고, 그 결과 표현재료로 종이, 붓, 연필, 채색 도구 정도만 제시 되어 캘리그래피에서 표현재료의 다양성이 갖는 의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미진사와 씨마스 출판사의 교과서는 문자예술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었는데 그 비중이 매우 적었다. 미진사의 경우 표현도구로 다양한 재료를 소개하고 있다는 면에서는 4종의 교과서 중 현대적 의미의 캘리그래피에 가장 근접하게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수업을 적용하게 될 J 고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씨마스 고등학교 미술 창작의 경우 캘리그래피의 비중이 가장 적었다. ‘글씨에 담긴 아름다움’이라는 소단원에서 한글서체, 한자서체, 전

각, 타이포그래피를 다루면서 짙막하게 언급만 되었다. 또한 전통서에 활용방법의 하나로 소개되고 있어 그 접근방식에 있어서 시각디자인을 바탕으로 한 현대적 의미의 캘리그래피를 다루고자 하는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단원 ‘글씨에 담긴 아름다움’ 과 ‘내용을 전달하는 디자인 1’ 에서 다루는 포스터 디자인과 함께 연계하여 캘리그래피를 활용한 포스터 제작수업을 전개하였다.

(2) 단원 설정의 이유

본 단원은 우리 생활 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현대적 의미의 캘리그래피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목적에 맞게 포스터로 표현해 보는 활동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캘리그래피는 ‘융합’ 이라는 사회적 흐름에 따라 전통을 현대에 맞게 재해석한 새로운 방식의 문자예술이다. 이렇게 기존의 것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은 학생들에게 종합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의 증진과 함께 문제를 바라보는 유연한 시각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표현의 형식과 재료에 제한을 두지 않고 여러 가능성을 시도하는데 초점을 두어 미술교과에 대한 학생들의 학습된 무기력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고, 자신만의 독특한 필체를 통해 개성 있는 표현을 해봄으로써 창작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한다. 이는 손글씨가 다른 장르에 비해 표현과정에 드는 시간이 짧다는 특징이 있어 일정한 시간동안 많은 도전 기회를 보장할 수 있고, 학생들이 글자의 형태에 이미 익숙하여 자신감을 쉽게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최근 다이어리 꾸미기 열풍에서 드러나는 학생들의 관심사를 반영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 이는 그동안 디지털 기기가 대체해왔던 글쓰기, 낙서하기 등 우리 안에 내재된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행위의 욕구가 나타난 것으로 이러한 학생들의 손글씨 쓰기에 대한 흥미를 수업에 반영하여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유도하고, 효과적인 수업을 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더불어 캘리그래피를 활용한 미술수업은 포스터 제작뿐만 아니라 북커버 디자인, 상품패키지 제작 등 학생들의 관심사가 다방면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분야와 널리 소통하는 태도를 기르는데 도움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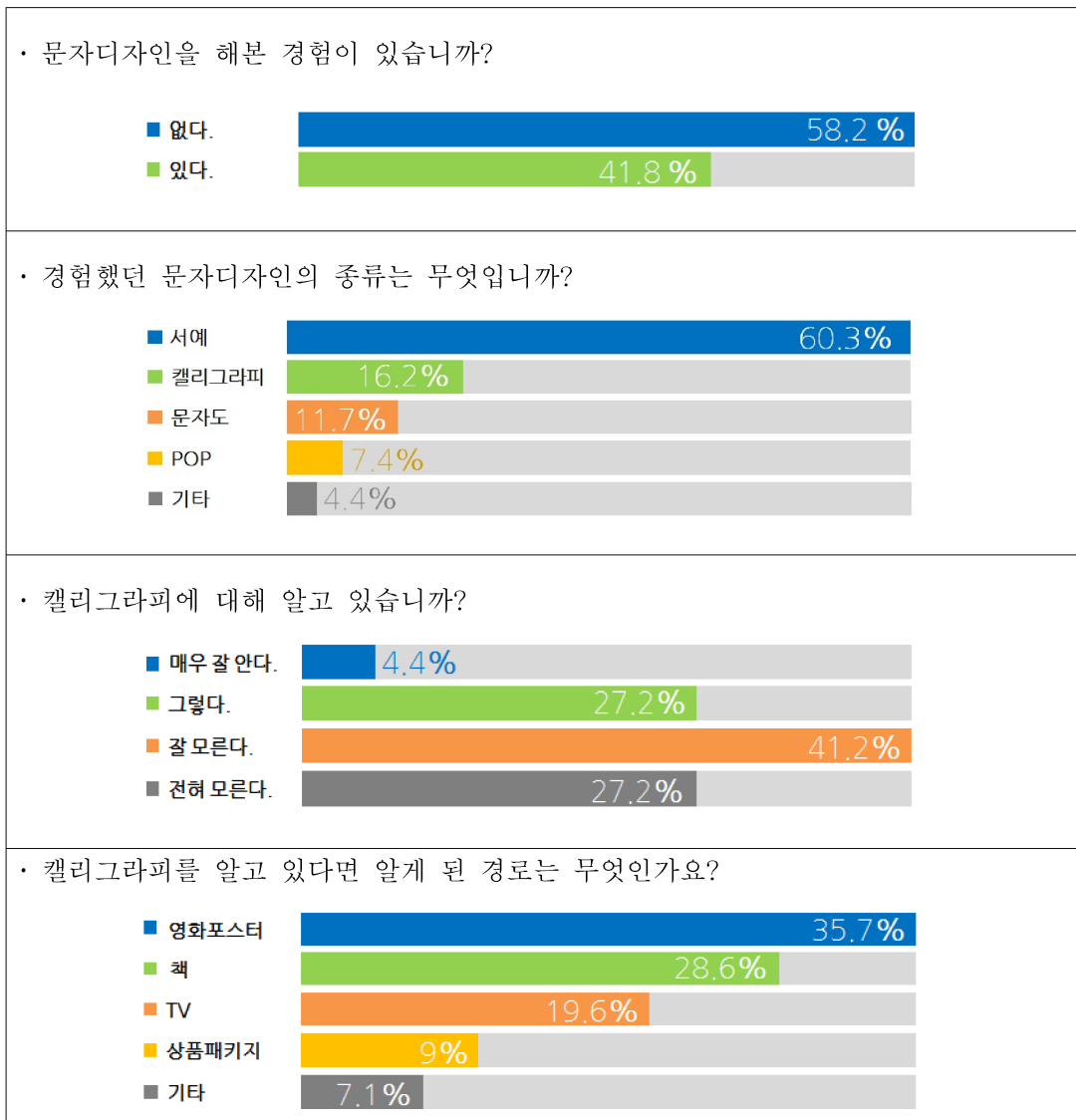
(3) 학습 집단의 구성

학습 집단의 형태는 모듈별 토론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성하고, 모듈 구성은 자유롭고 편안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4) 학습자 실태 분석

수업 전 학습자의 준비도를 진단하기 위해 캘리그래피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도와 교육적 경험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는 <표 3>과 같다.

<표 3> 수업 전 설문조사 결과



이와 같은 진단평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먼저 문자디자인 경험이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의 비율이 4 : 6 정도였고, 경험했던 문자디자인의 종류로는 서예, 캘리그래피, 문자도, POP 순으로 나타났다. 또 캘리그래피에 대해서 잘 알거나 알고 있다고 답한 학생은 31.6%로 과반수이상의 학생들이 캘리그래피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그래피를 알고 있다고 답한 학생들은 영화포스터, 책, TV, 상품패키지 순으로 알게 됐다고 답했으며, 그 중 영화포스터가 35.7%로 가장 높았다. 기타 의견으로 중학교 미술수업을 통해 알게 됐다고 답한 학생들이 있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캘리그래피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캘리그래피의 어원과 역사를 먼저 설명하고,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캘리그래피 사례를 통해 현대적 의미의 캘리그래피를 이해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다양한 재료에 따른 캘리그래피의 여러 가지 효과를 설명하고, 표현 재료에 제한을 두지 않고 학생들이 생활주변의 다양한 재료를 탐색하여 표현 재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단원 학습의 전개 계획

(1) 단원의 목표

단원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제시하였다.

- ① 현대적 의미의 캘리그래피에 대해 안다.
- ② 서예의 전통적·현대적 가치와 서예가 활용되는 다양한 방식을 이해한다.
- ③ 한글의 조형미를 살려 창의적으로 캘리그래피를 쓸 수 있다.
- ④ 캘리그래피를 활용하여 목적과 의도에 맞는 포스터를 제작할 수 있다.
- ⑤ 다양한 일상생활용품에 표현 재료를 활용해보면서 창작의 즐거움을 경험한다.

(2) 단원 학습 계획

학습자 실태 분석결과 캘리그래피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고 흥미를 끄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1차시에는 캘리그래피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개념적 특징을 파악하고, 포스터에서 캘리그래피가 사용되는 현상의

특징과 문제점을 찾아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캘리그래피를 활용한 포스터 제작 아이디어 구상지를 작성하고 여러 가지 표현 재료를 창의적으로 탐색해보면서 의도에 적합한 표현 도구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2차시에는 1차시에 작성된 아이디어 구상지와 표현 도구를 사용하여 캘리그래피를 활용한 포스터를 제작하였다. 완성된 작품을 감상하고 개인발표를 통해 학생들이 표현의도와 결과물의 일치정도를 살펴보고 아이디어 논리화 과정의 적합성과 개선방안에 대해 토의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차시별 교수-학습계획

차시	학습단계	학습주제	학습내용
1차시	준비-발상-구상	캘리그래피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캘리그래피의 어원과 역사 및 생활 주변에 있는 캘리그래피를 통해 현대적 의미의 캘리그래피에 대해 이해한다. · 제시된 이미지에 맞는 캘리그래피를 구상해본다. · 다양한 표현 재료를 탐색하고 표현의도에 맞는 도구 및 방법을 결정한다.
2차시	표현-감상-정리	캘리그래피를 활용한 포스터 디자인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의도에 맞게 캘리그래피를 써본다. · 캘리그래피를 활용해 포스터를 제작한다. ·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고 표현의도에 적합한 개선방법을 찾아본다.

(3) 지도상의 유의점

- ①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재료와 방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표현 효과가 다를 수 알려주되 기법만을 강조하지 않도록 한다.
- ②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캘리그래피를 제작하도록 한다.
- ③ 주제가 정해지면 이를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캘리그래피를 시험해 볼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준다.

④ 다른 학생의 작품을 감상하고 느낀 점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하면서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격려한다.

(4) 평가계획

- ① 학생들의 태도, 과정, 결과물에 대한 평가가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학생들의 참여도를 포함한 학습 태도를 관찰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 ② 학생의 의도, 논리화 과정, 아이디어의 조형화 과정과 표현력에 동등한 배점 방식을 취해 표현기법에만 치중하지 않도록 한다.
- ③ 학생이 자신의 준비성, 학습동기, 표현능력, 성취수준, 참여도 등을 스스로 생각하고 반성할 수 있도록 자기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 ④ 평가기준을 학습자에게 미리 제시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인다.

3) 교수-학습지도안

본 연구의 구체적인 교수-학습지도안은 총 2차시로 구성되었다.

<표 5> 1차시 교수-학습지도안

단 원	대단원	매체와 표현		시 간	50분
	소단원	글씨에 담긴 아름다움			
대 상	고등학교 1학년			수업일시	2014.00.00.
학습주제	캘리그래피의 이해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적 의미의 캘리그래피에 대해 안다. · 서예의 전통적, 현대적 가치와 서예가 활용되는 다양한 방식을 이해한다. · 캘리그래피를 활용한 포스터를 구상한다. 				
학습자료	PPT, 영상자료, 이미지, 아이디어 구상지, 다양한 표현재료(붓, 먹, 수채화 물감, 접시, 파레트, 색연필, 크레파스, 면봉, 나무젓가락, 빨대, 수세미, 도화지, 화선지, A4용지, 판화지 등)				
단 계 (시간/분)	학습 요소	학습활동			
		교사		학생	
도 입	수업	· 인사 및 출석점검		· 바른 자세로 인사한다.	

<p>(5 ')</p>	<p>소개 및 동기 유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캘리그래피 관련 동영상 감상 및 질문 · 학습목표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캘리그래피 관련 동영상을 감상하고 질문에 대답한다. · 학습목표를 확인한다.
<p>전 개 (40 ')</p>	<p>설명 및 시범</p> <p>질의 응답</p> <p>반응 형성 및 명료화</p> <p>설명 및 시범</p> <p>문제 인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내용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캘리그래피의 어원 - 캘리그래피의 역사 - 캘리그래피의 특징 - 캘리그래피가 활용되는 사례 - 캘리그래피 인터뷰 - 캘리그래피 작업과정에 대한 영상 · 형성평가 및 보충설명 · 문제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포스터를 중심으로 캘리그래피의 특징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캘리그래피 과잉현상 · 학습내용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스터의 역할 - 포스터의 요소 · 학습과제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캘리그래피를 활용한 포스터 제작 구상하기 및 다양한 표현 재료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른 태도로 경청하고, 학습내용을 인지한다. · 질문에 대답한다. ·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한다. · 바른 태도로 경청하고, 학습내용을 인지한다. · 학습과제를 인지한다.

	아이디어 탐색	· 평가기준 제시 및 개별 순회지도	· 평가기준을 인지하고, 제시된 이미지를 보며 캘리그래피를 활용한 포스터 제작을 구상한다.
	아이디어 정교화		· 아이디어 구상이 끝나면 다양한 표현 재료를 탐색해보고, 표현의도에 맞는 표현 재료를 결정한다.
정리 (5')	정리 및 차시 예고	· 수업 내용 정리 · 주변 환경 정리정돈 · 다음 차시 예고	· 수업내용을 회상해본다. · 주변 환경을 정리 정돈한다. · 다음 차시 내용을 숙지하고 주변을 정리 정돈한다.

<표 6> 2차시 교수-학습지도안

단원	대단원	매체와 표현	시간	50분
	소단원	글씨에 담긴 아름다움		
대상	고등학교 1학년		수업일시	2014.00.00.
학습주제	캘리그래피를 활용한 포스터 디자인 제작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의 조형미를 살려 창의적으로 캘리그래피를 쓸 수 있다. · 캘리그래피를 활용하여 목적과 의도에 맞는 포스터를 제작할 수 있다. · 다양한 일상생활용품을 표현 재료로 활용해보면서 창작의 즐거움을 경험한다. 			
학습자료	PPT, 영상자료, 여러 가지 이미지, 아이디어 구상지, 다양한 표현재료(붓, 먹, 수채화 물감, 접시, 파레트, 색연필, 크레파스, 면봉, 나무젓가락, 빨대, 수세미, 도화지, 화선지, A4용지, 판화지 등)			

단 계 (시간/분)	학습 요소	학습활동	
		교사	학생
도 입 (5 ')	수업소개 및 동기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및 출석점검 · 전시학습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캘리그래피의 개념 - 포스터의 역할 · 학습목표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른 자세로 인사한다. · 질문에 답하고, 전시 학습내용을 회상해본다. · 학습목표를 확인한다.
전 개 (40 ')	문제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과제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재료 탐색 및 여러 가지 표현 방법 연구 - 캘리그래피를 활용해 의도와 목적에 맞게 포스터 제작 · 평가기준 상기 및 유의사항 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과제제시를 인지한다. ·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을 인지한다.
	아이디어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순회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 아이디어 구상지를 바탕으로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연구한다. 캘리그래피를 활용해 포스터를 제작한다.
	종합 및 재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전시 및 발표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발표 분위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전시 및 발표내용 정리 후 주변 환경을 정리한다. · 작품표현의도와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발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 의도에 맞는 개선방안에 대해 토의한다.
정리 (5')	정리 및 차시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내용 정리 · 주변 환경 정리정돈 · 다음 차시 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내용을 회상해본다. · 주변 환경을 정리 정돈한다. · 다음 차시 내용을 숙지하고 주변을 정리 정돈한다.

<표 7>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평가관점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캘리그래피에 대해 잘 이해하였는가? · 한글의 조형적 특징을 살려 창의적으로 표현하였는가? · 학생의 의도와 목적에 맞게 포스터를 제작하였는가? · 표현재료와 용구의 특징과 제작과정을 이해하고 실행하였는가? · 집중하여 성실하게 수업에 참여 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성평가 실기평가 관찰법 자기평가보고서법

본 연구의 평가기준과 방법은 2009개정 선택교육과정 미술 창작의 성취기준과 평가계획 및 평가방법을 토대로 마련하였다. 캘리그래피에 대한 이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수업 중간에 형성평가를 실시하고 보충설명을 하였다. 실기평가는 아이디어 구상지와 포스터를 통해 학생이 작품에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드러냈는지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였으며,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관찰을 위해 경우에 따라 비디오 녹화를 하여 평가에 반영하였다. 또한 자기평가 보고서를 통해 학생 스스로 준비성, 학습동기, 표현능력, 성취수준, 참여도 등에 대해 반성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결과는 학생들의 자기 진단 및 반성, 교사의 교수진단 및 다음 수업 준비를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되었고, 수업 후 설문조사를 통해 수업의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4. 수업결과분석 및 기대효과

1) 수업결과분석

본 수업에 대한 활동 결과물은 <표 8>과 같다.

<표 8> 학생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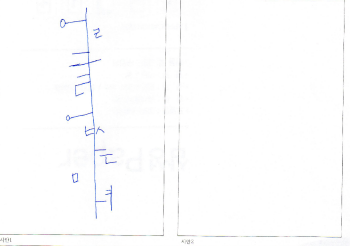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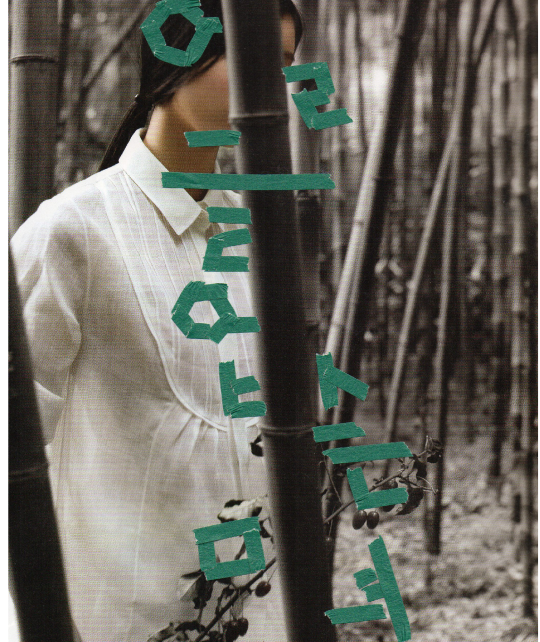
아이디어 구상지	캘리그래피를 활용한 포스터
<p>제시된 아이디어를 보고 떠오르는 것들을 3단어로 적어주세요.</p> <p>두근거리는, 두꺼운, 두꺼운</p> <p>3단어를 문구로 만들어주세요. 두근거리는 사람이 두꺼운?</p> <p>표현하고 싶은 주제를 적어주세요. 두꺼운, 두꺼운, 두꺼운</p> <p>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를 적어주세요. 다들하는 것같이 두꺼운, 두꺼운, 두꺼운</p> <p>세부적인 캘리그래피 계획을 적어주세요. - 글꼴: 두꺼운, 두꺼운 - 글자크기: 두꺼운, 두꺼운 - 색상: 검정 - 표현방법: 붓, 두꺼운</p> 	
<p>두근거리는 설레임을 ‘두’의 초성을 크고 두껍게 표현하고 글자의 모양을 전체적으로 둥글게 표현함으로써 귀여운 느낌이 잘 느껴진다. 아이디어 구상지를 보면 글자의 배열에 대한 고민의 흔적도 엿보인다.</p>	
<p>제시된 아이디어를 보고 떠오르는 것들을 3단어로 적어주세요.</p> <p>공포, 두근거리는, 두근거리는</p> <p>3단어를 문구로 만들어주세요. 공포가 두근거리는 두근거리는</p> <p>표현하고 싶은 주제를 적어주세요. 공포, 두근거리는, 두근거리는</p> <p>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를 적어주세요. 공포의 주제를 두근거리는</p> <p>세부적인 캘리그래피 계획을 적어주세요. - 글꼴: 두근거리는, 두근거리는 - 글자크기: 두근거리는 - 색상: 검정 - 표현방법: 붓에 빛으로 - 위치: 두근거리는</p> 	
<p>이 학생은 갑작스런 공포감에 놀라 방어적 자세를 취하는 모습을 거칠게 표현하고자 하였으나 잘 표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붓과 종이의 조합이 거칠게 표현되기 힘들었는데 다양한 재료를 더 탐색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의견을 덧붙였다.</p>	

아이디어 구상지	캘리그래피를 활용한 포스터
<p>> 제시된 이미지를 보고 떠오르는 것들을 3단어로 적어주세요. 고통, 순정, 순수</p> <p>> 3단어를 문구로 만들어주세요. 순수한 마음으로 순정을 담은 고향을 꿈꾼다.</p> <p>> 표현하고 싶은 주제를 적어주세요. 강미</p> <p>>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를 적어주세요. 순수하고 순정을 생각한 후 강미를 쓰게 된다.</p> <p>> 세부적인 캘리그래피 계획을 적어주세요. 글꼴대역: 반고딕, 번딕, 다방, 한글 색상: 검정색 표현방법: 강미의 내림을 많은 좌우를 상하에 분포된 모습 표현한다. 위치: 가운데 위</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data-bbox="263 638 438 884"> <p>강미</p> </div> <div data-bbox="454 638 630 884"> <p>강미</p> </div> </d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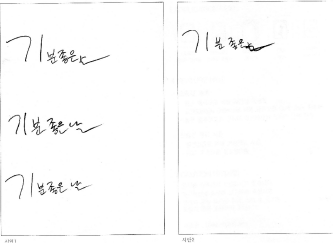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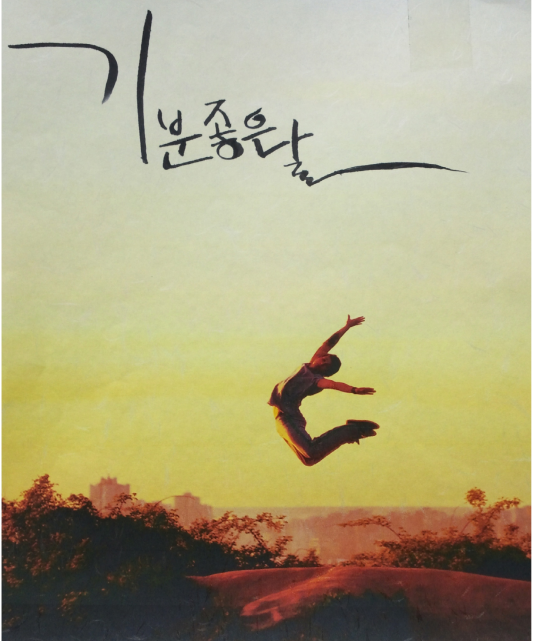
이 학생은 얇고 곡선이 강조된 글꼴을 사용하여 이미지가 주는 여성적인 느낌을 잘 살렸다. 또 ‘미’ 자를 자세히 보면 초성 ‘口’에는 장미의 잎 모양을 표현하고, 중성 ‘丨’에는 줄기의 모양을 형상화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p>> 제시된 이미지를 보고 떠오르는 것들을 3단어로 적어주세요. 고통, 슬픔, 허탈</p> <p>> 3단어를 문구로 만들어주세요. 고통을 기다리며...</p> <p>> 표현하고 싶은 주제를 적어주세요. 허탈한 무덤의 길로 가는 사람</p> <p>>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를 적어주세요. 모든 슬픔이 내쳐</p> <p>> 세부적인 캘리그래피 계획을 적어주세요. 글꼴대역: 번딕, 고딕, 번딕, 다방, 한글 색상: 흰색 표현방법: 고통, 슬픔, 허탈한 무덤의 길로 가는 사람 위치: 가운데 위</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data-bbox="263 1422 438 1668"> <p>고도를 기다리며...</p> </div> <div data-bbox="454 1422 630 1668"> <p>고도를 기다리며...</p> </div> </div>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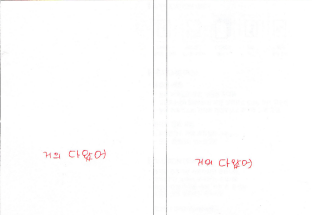

이 작품은 부러진 나무젓가락을 이용하여 표현했다. 학생의 발표내용에 따르면 이미지 속 바닥의 느낌과 나무젓가락으로 쓴 글자의 느낌이 비슷하여 표현 도구로 나무젓가락을 선택했는데 가독성이 떨어져 보여 다른 색이나 방법으로 써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주었다.

아이디어 구상지	캘리그래피를 활용한 포스터
<p>제시된 이미지를 보고 떠오르는 것들을 3단어로 적어주세요. 레안나 원혼의 신부 공해</p> <p>3단어를 문구로 만들어주세요. 얼굴 안 보여요 애분어개</p> <p>표현하고 싶은 주제를 적어주세요. 얼굴 없는 미녀</p> <p>주제를 선명하게 된 이유를 적어주세요. 가...</p> <p>세부적인 캘리그래피 계획을 적어주세요. - 글꼴(자)인 한글고딕 한글고딕 - 글자크기 100 100 - 색상 초록색 - 표현방법 중첩 중첩 - 위치</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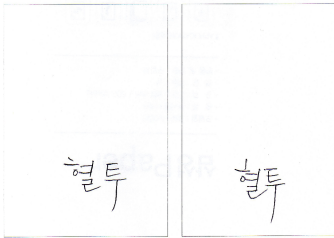

이 작품은 마스킹 테이프를 가지고 표현한 작품이다. 이미지를 통해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뭔가 미인일 것 같은 느낌을 ‘얼굴 없는 미녀’ 라는 글자로 표현하였는데, 테이프로 획의 굵기나 글자의 간격을 조절하기가 어려웠다고 발표하였다. 특별한 표현의도 없이 이런 저런 효과를 실험하는 게 재미있었다는 소감도 있었다.

<p>제시된 이미지를 보고 떠오르는 것들을 3단어로 적어주세요. 경포 기분 좋은 날 풍경음</p> <p>3단어를 문구로 만들어주세요. 기분 좋은 날 / 기분 좋은 날 / 기분 좋은 날 / 기분 좋은 날</p> <p>표현하고 싶은 주제를 적어주세요. 산에서 편한 날 편안한 날 편안한 날 편안한 날 편안한 날</p> <p>주제를 선명하게 된 이유를 적어주세요. 산에서 편한 날 편안한 날 편안한 날 편안한 날</p> <p>세부적인 캘리그래피 계획을 적어주세요. - 글꼴(자)인 한글고딕 한글고딕 - 글자크기 100 100 - 색상 검정 검정 - 표현방법 중첩 중첩 - 위치</p> 	
---	--

이미지에서 느껴지는 기분 좋은 느낌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글자 ‘기’의 초성과 중성, ‘날’의 중성을 길게 빼어 위로 옆으로 상승, 팽창하는 느낌을 주었다.

아이디어 구상지	캘리그래피를 활용한 포스터
<p>제시된 이미지를 보고 떠오르는 것들을 3단어로 적어주세요. 겨울 유용 상처</p> <p>주제어를 중심으로 연관어주세요. 겨울 다 왔어</p> <p>표현하고 싶은 주제론 적어주세요. OH OH 안녕하세요</p> <p>주제를 생생하게 된 이유를 적어주세요. OH OH OH OH</p> <p>세부적인 캘리그래피 계획을 적어주세요. - 글꼴타입: 고딕 - 색상: 흰색 - 표현방법: 손글씨 - 위치: 하단</p> 	

추운 겨울날 상처 입은 두 사람이 의지하여 목적지를 향해 힘든 길을 가는 모습을 ‘겨울 다 왔어’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눈발의 색과 동일한 색으로 쓰여 마치 휘날리는 눈으로 쓴 듯한 글자는 귀엽고 소박한 느낌이 들어 이미지 속 날씨가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진다.

<p>제시된 이미지를 보고 떠오르는 것들을 3단어로 적어주세요. 싸움 피 피멍</p> <p>주제어를 중심으로 연관어주세요. 피 나는 싸움이다</p> <p>표현하고 싶은 주제론 적어주세요. 혈투</p> <p>주제를 생생하게 된 이유를 적어주세요. 피 피 피 피</p> <p>세부적인 캘리그래피 계획을 적어주세요. - 글꼴타입: 서예 - 색상: 흰색 - 표현방법: 손글씨 - 위치: 하단</p> 	
--	---

이 작품의 의도는 피가 난무하는 싸움을 연상시키는 이미지에 어울리게 거칠고 힘든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을 조절하여 빠르게 써나감으로써 갈필효과를 내고자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또 아이디어 구상지에서와 달리 글자를 한 줄에 모두 쓰지 않고 위아래로 조금씩 이동하여 자칫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구성에 변화를 주어 지루한 느낌이 없다. 다만 전반적으로 어두운 톤의 이미지 때문에 색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소감이 있었다.

아이디어 구상지	캘리그래피를 활용한 포스터
----------	----------------

제시된 이미지를 보고 떠오르는 것들을 3면으로 적어주세요.

소망

> 이미지를 본 후의 관구로 만들어주세요.
소망

> 표현하고 싶은 주제나 주제를 적어주세요.
소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하늘은 높이 점프하는 모습

>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를 적어주세요.
사람의 상상 속에서 이루어져서 가능하다고.

> 세부적인 캘리그래피 계획은 무엇이었는지
소망의 의미를 생각해 그림에서 점프하는 모습과 점프하는 자세.

- 글자크기: ~~소망~~ 소망
- 색상: ~~검정~~ 검정, 빨
- 표현방법: ~~복합~~ 붓
- 위치: ~~가운데~~ 붓

소망

소망



이미지 속 인물이 빨간색 천을 들고 뛰는 모습에서 글자 ‘소’를 연상하여 ‘소망’이라는 단어를 표현했다. ‘소’자의 초성 ‘ㅍ’과 중성 ‘ㅇ’의 획이 옆과 아래로 쭉 뻗어 꺾인 것에 착안하여 ‘망’자의 중성 ‘ㅏ’의 획을 의도적으로 인쪽으로 꺾어서 표현함으로써 글꼴에 통일성을 부여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

> 제시된 이미지를 보고 떠오르는 것들을 3면으로 적어주세요.

눈 비 별

> 이미지를 본 후의 관구로 만들어주세요.
눈 · 비 · 별

> 표현하고 싶은 주제나 주제를 적어주세요.
~~눈과 비가 내리는 모습~~ 무언가가 내리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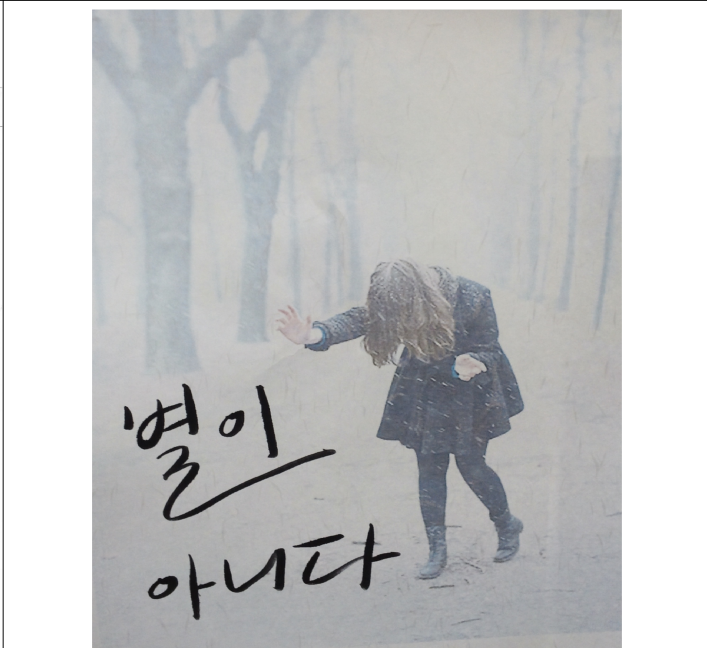
>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를 적어주세요.
사람들 모두가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비를 보며 어떤 상상력을 갖는지

> 세부적인 캘리그래피 계획은 무엇이었는지
글자크기: ~~눈~~ 눈, 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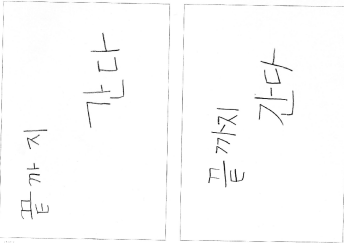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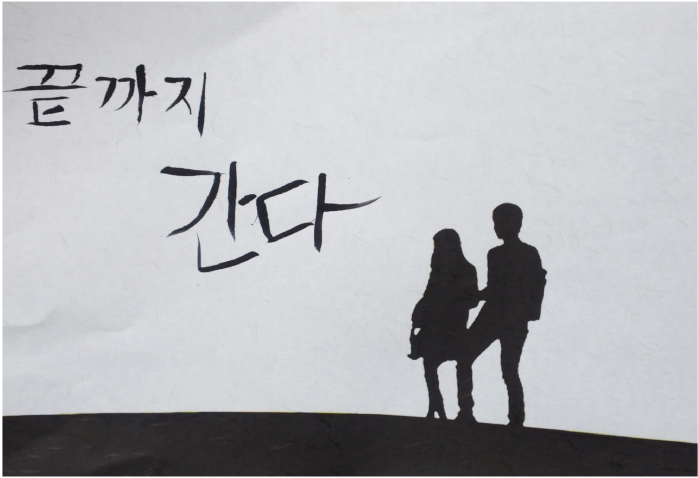
- 색상: ~~검정~~ 검정, 빨
- 표현방법: ~~복합~~ 붓
- 위치: ~~가운데~~ b

눈이
아니다

눈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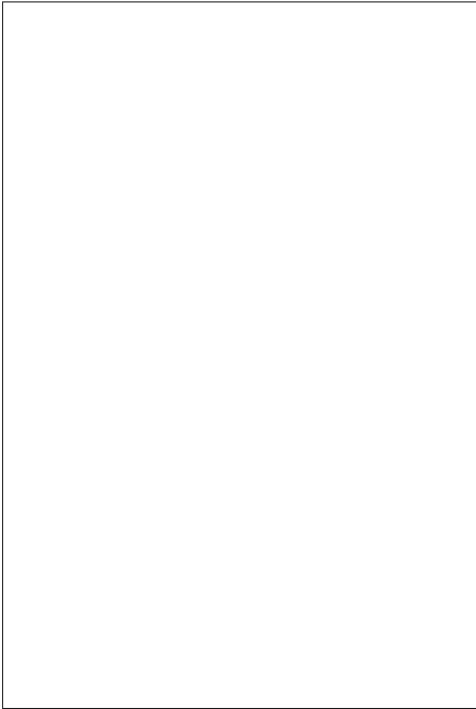

하늘에서 내리는 비인지 눈인지 모를 어떤 물체를 보고 모호함을 느꼈는지 ‘눈이 아니다’라는 문구를 표현했다. ‘별’자의 중성을 길게 쭉 뻗어 이미지 속 인물의 쭉 뻗은 손과 닿을 것처럼 보여 재밌는 상상을 불러일으킨다.

아이디어 구상지	캘리그래피를 활용한 포스터
<p>제시된 이미지를 보고 떠오르는 것들을 3단어로 적어주세요.</p> <p>야만도구 복음성 반대 사랑하는 연인</p> <p>3단어를 글자로 만들어주세요. 원근의 반대끼리 복음성 야만도구하는 연인</p> <p>표현하고 싶은 주제를 적어주세요. 도망치는 연인의 다양한 모습</p> <p>주제를 설명하게 된 이유를 적어주세요. 그림을 보고 비와 남자의 모습이 이집게 느껴져서 세부적인 캘리그래피 제작을 적어주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자크기: - 색상: - 표현방법: 연필로 - 위치: 	
<p>이 작품은 이미지가 실루엣(그림자)애니메이션을 떠오르게 했다면서 연상연하 커플의 사랑을 표현했다고 한다. 반대에 부딪힌 연인들의 절박함을 ‘끝까지 간다’ 라는 문구로 거칠게 표현하고자 했다. 등근 면봉 끝 때문에 의도와 달리 자꾸 귀여운 느낌으로 표현되어 면봉을 풀어헤치고 표현하였는데 생각만큼 표현이 잘되지 않은 것 같다는 소감을 전했다.</p>	

전반적으로 수업에 대한 관심도나 몰입도는 여학생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글자의 조형적 측면을 활용하여 섬세한 표현을 하려고 노력하는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많았으며, 이를 위해 단어가 표현하는 대상을 여러 관점에서 바라보고 예리하게 관찰하여 표현하는 학생들도 많았다. 또 수업의 결과물에 대한 애착 또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강했다. 반면 남학생들은 재료나 운필에 따른 글자의 느낌에 주목하여 강하고 거친 표현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고, 이미지를 보고 유쾌한 발상과 표현을 하려는 학생이 많았다. 또한 표현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아 새로운 표현재료와 도구들을 시도해보던 학생들이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평소 자주 사용하는 물감, 먹, 붓펜 등의 재료로 다시 방법을 바꾸는 경우가 많았는데 남학생의 경우 다양한 표현 재료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끈기 있게 시도하여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은 편이었다. 또한 똑같은 참고용 글씨연습 교재를 주었을 때, 여학생은 한두 번 따라 써보고 참고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남학생의 경우 교재의 글씨를 똑같이 따라 쓰는 데에만 집중하여 정작 본인의 글씨를 연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표 9> 수업에 활용된 아이디어 구상지 교수-학습자료

『캘리그래피를 활용한 포스터 제작』을 위한 아이디어 구상하기	
학년 반 이름:	
▷ 제시된 이미지를 보고 떠오르는 것들을 3단어로 적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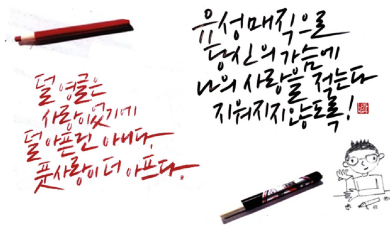

▷ 3단어를 문구로 만들어보세요.	
▷ 표현하고 싶은 주제를 적어보세요.	
▷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를 적어주세요.	
▷ 세부적인 캘리그래피 계획을 적어주세요.	
• 글꼴디자인:	
• 글자크기:	
• 색상:	
• 표현방법:	
• 위치	
	
시안1	시안2

<표 9>의 아이디어 구상지는 학생들이 세부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글꼴 디자인’, ‘글자 크기’, ‘색상’, ‘표현방법’, ‘위치’ 등을 나누어 제시하였다. 하지만 활동 전 학생들에게 구상지 작성 요령에 대해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상지에 사용된 용어가 주는 모호함 때문에 혼란스러워 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따라서 사용된 용어를 ‘글꼴 디자인’이 아닌 ‘글자 모양’과 같은 직관적인 용어로 바꾸거나, 용어를 사용하는 대신 시안에 대한 예시를 그림으로 구상지에 함께 첨부한다면 학생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와 함께 캘리그래피의 범위가 넓어 영화포스터 제작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글자를 연습할 수 있는 교재는 학생의 수준을 파악하여 개별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수업 초반 이미지를 따로 제시하지 않고 자유로운 발상을 통한 캘리그래피 활동으로 진행하였을 때, 학생들이 참고자료를 보고 글자 연습만 하다 수업이 끝나는 상황이 발생했다. 또 배부된 참고자료가 마치 정답인 것처럼 여겨지는 현상 때문에 학생들의 창의적인 표현을 이끌어내는데 오히려 방해요소로 작용했다. 따라서 참고자료는 교사가 관찰을 통해 캘리그래피의 표현활동에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파악하여 조심스럽게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10> 수업에 활용된 PPT 교수-학습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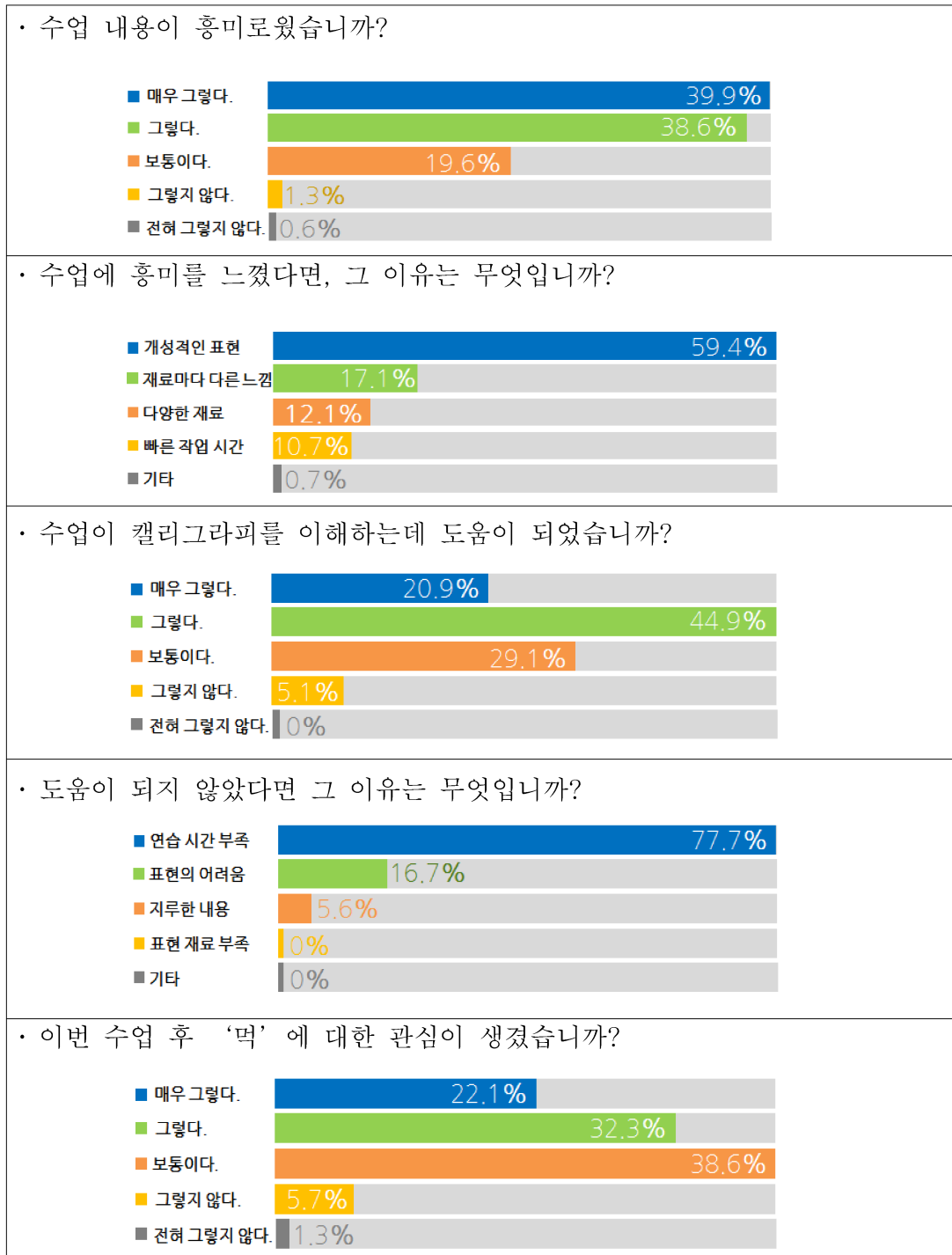
번호	자료	내용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캘리그래피 뮤직비디오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한다. 우리 생활 주변에서 쉽게 접하는 캘리그래피를 통해 캘리그래피의 개념과 특징을 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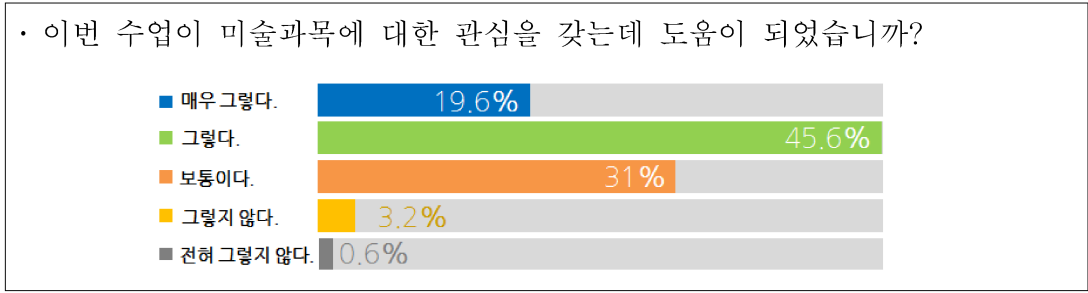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구마다 다른 느낌 - 다양한 쓰기 도구 - 종이 종류에 따라 다른 질감과 번짐 - 생활 속 다양한 재료의 쓰기 도구화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자의 이미지화 - 다양한 글꼴 쓰기 - 획, 기울기 등의 변형 - 단어의 연상이미지 -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합 <p>문구를 다양한 방법으로 변형·조합하는 과정을 통해 글꼴 형태를 결정한다.</p>

<표 10>은 수업시간에 교수자료로 제시되었던 PPT자료다. 친근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학생들이 좋아하는 노래 가사의 캘리그래피가 담긴 뮤직비디오를 통해 흥미를 유도하고, 우리 생활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영화포스터 및 상품패키지를 통해 캘리그래피의 현대적 개념과 특징을 알아보았다. 특히 뮤직비디오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 수업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도구를 직접 탐색하기 전에 표현 재료에 따라 다른 느낌을 이미지를 통해 알아보면서 다양한 시도에 대한 호기심을 갖도록 하였다. 이 때 가급적 학생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재료를 활용한 작품을 보여주거나 수업 시 준비된 표현 재료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한 예시를 많이 보여주어 다양한 발상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자료 3번과 같이 글자를 이미지화 해가는 과정에 대한 힌트를 제공할 수 있는 예시를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

수업이 끝난 후 캘리그래피를 활용한 미술수업의 적용 가능성과 가치 및 보완점을 규명하기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표 11>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11> 수업 후 설문조사 결과





설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업 내용이 흥미로웠습니까?’ 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고 응답한 학생이 39.9%, ‘그렇다’ 고 응답한 학생이 38.6%였으며,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학생은 19.6%, ‘그렇지 않다’ 고 응답한 학생은 1.3%, ‘전혀 그렇지 않다’ 고 응답한 학생은 0.6%였다. 70% 이상의 학생들이 캘리그래피 수업에 흥미를 보였고, 수업 후 소감을 통해 주변에서 자주 보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 새롭게 알고, 직접 경험할 수 있어서 즐거웠다고 답하였다. 특히 전술한 바와 같이 수업 도입 자료로 사용한 캘리그래피 뮤직비디오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 새로운 과제를 제시할 때 수업자료의 매력도가 학생들의 흥미를 끄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관련된 문항인 ‘수업에 흥미를 느낀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는 ‘개성적인 표현’ 을 할 수 있어서가 59.4%, ‘재료마다 다른 느낌’ 이 17.1%, ‘다양한 재료’ 가 12.1%, ‘빠른 작업 시간’ 이 10.7%, ‘기타’ 0.7% 순으로 나타나 학생들이 자기 글씨만의 독특한 표현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다양한 재료와 그에 따른 다른 느낌에 대한 반응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물리적 여건상 학생들이 5 종류 이하의 표현 재료 밖에 경험하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캘리그래피 활동을 효과적으로 경험하게 하려면 물리적 여건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 시간적 여건을 고려하여 모듈별로 각각 다른 종류의 표현 재료를 마련하고 정해진 시간동안 탐색 후 모듈을 이동하면서 다양한 도구를 경험하게 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수업이 캘리그래피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20.9%가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했고, 44.9%가 ‘그렇다’ 라고 응답했다. ‘보통이

다’ 라고 응답한 사람은 29.1%,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한 사람은 5.1%, ‘전혀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한 사람은 없었다. 이와 관련한 질문으로 ‘수업이 캘리그래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77.7%의 학생이 ‘연습 시간 부족’ 이라고 응답하였고, 16.7%의 학생이 ‘표현의 어려움’ 이라고 응답하였으며, 5.6%의 학생이 ‘지루한 내용’ 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를 보면 캘리그래피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학생 대다수가 연습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캘리그래피는 다양한 재료를 충분히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연습시간을 여유 있게 마련해 주는 것이 학생들의 캘리그래피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또 표현이 어려웠다는 학생들이 있어 개인차를 고려한 교수자료를 따로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이번 수업 후 떡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 는 응답이 22.1%, ‘그렇다’ 는 응답이 32.3%, ‘보통이다’ 는 38.6%, ‘그렇지 않다’ 는 5.7%, ‘전혀 그렇지 않다’ 는 응답은 1.3%였다. 이를 보면 절반 정도의 학생들이 떡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떡에 대해 관심을 갖지 못한 학생들의 경우 대부분 떡이 아닌 다른 재료를 사용해서 표현했기 때문이라고 응답해 떡으로 표현했던 학생들은 대부분 떡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또 떡의 어떤 점이 좋은 지에 대해서는 떡의 번짐이 재미있었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떡의 냄새가 좋다는 응답도 눈에 띄었다. 이는 그동안 떡이 가진 표현 재료로서의 매력을 기법중심의 서예활동 방식이 가리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떡을 새롭게 인식하는 기회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면 학생들이 우리 전통서예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을 해소하고, 나아가 우리 옛 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전통재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시각적 문제해결에 대한 유연한 사고능력을 기를 수 있으리라 짐작된다.

‘이번 수업이 미술에 대한 관심을 갖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19.6%의 학생들이 ‘매우 그렇다’ , 45.6%의 학생들이 ‘그렇다’ , 31%의 학생들이 ‘보통이다’ , 3.2%의 학생들이 ‘그렇지 않다’ , 0.6%의 학생들이 ‘전혀 그렇지 않다’ 고 응답해 절반 정도의 학생들이 캘리그래피 수업을 통해

미술 교과에 대한 흥미를 더 느끼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캘리그래피를 활용한 포스터 제작 수업이 학생들의 캘리그래피에 대한 흥미뿐만 아니라 미술 교과에 대한 흥미도 높일 수 있는 의미 있는 수업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캘리그래피가 자기만의 독특한 글씨를 표현할 수 있는 개성적인 표현 활동이라는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이는 손글씨가 미술의 본질 중 하나인 창의적인 표현을 가능하게 해줌을 말한다. 또한 학생들에게 서예의 주재료인 먹을 재인식하게 함으로써 전통서예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동시에 전통을 현대적 시각에서 재해석하는 일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다만 우리나라 일반계 고등학교의 시간적·물리적 여건이 깊이 있는 창작 수업을 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교사는 캘리그래피 수업 시수를 늘리거나 다른 단원과 연계한 수업을 통해 캘리그래피를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도구가 마련되기 어려울 경우 직접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캘리그래피는 표현도구에 제한이 없으므로 생활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쓰다 버린 칫솔이나 수세미, 스펀지부터 나뭇가지, 식물의 뿌리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재료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들의 수준차를 고려하여 교수자료를 다양하게 마련하고 세심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대부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활용해 캘리그래피를 써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이나 사진 편집 기능이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심화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면 캘리그래피를 활용한 미술수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고려할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수업대상의 성별에 대한 고려다. 전술한 바와 같이 여학생들은 뛰어난 관찰력을 바탕으로 섬세한 표현을 많이 하고 주로 귀엽거나 밝은 톤의 이미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남학생의 경우 캘리그래피를 오락처럼 받아들여 새로운 도구나 방법을 과감하게 시도하고 거친 표현을 즐겨하는 경향이 강했다. 따라서 여학생의 경우 귀엽고 밝은 이미지와 섬세한 표현이 가능한 도구들을 다양하게 제시해주고, 남학생의 경우 경쾌하고 다이내믹한 이미지와 생활주변의 도구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해준다면 활동에 대한 흥미를 더욱 높일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둘째, 시간이 부족할 경우 이미지에 맞는 문구를 정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다. 따라서 이미지에 대한 연상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처음 몇 번의 수업을 하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영화 제목, 책 제목, 좋은 글귀 등을 묶어서 자료로 제시해 주었다. 하지만 아무런 조건 없이 제시하니 그대로 베껴 쓰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후 ‘문구를 그대로 베끼지 말 것’, ‘이미지와 문구의 어울림을 꼭 고려할 것’ 이라는 조건을 함께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창의적인 표현을 유도할 수 있도록 발문과 격려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청소년기의 아이들은 타인의 평가에 예민한 시기이다. 다양한 도구를 가지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어설피고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결과물이 나왔을 때 학생들은 또래집단이나 교사의 평가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처음 해보는 표현에 대해 친구들의 놀림이나 빈정거림을 수치스럽게 여겨 아예 시도를 꺼려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더 새로운 표현방법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학생이 있었다. 전자는 여학생의 경우가 많았고 후자는 남학생의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교사의 반응이나 평가에 따라 이러한 분위기는 반전되기도 하여 교사는 학생의 성별이나 개별적 성향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과감하고 새로운 시도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있다.

2) 캘리그래피를 활용한 미술수업의 기대효과

오늘날 한국의 교육은 기존 가치와 질서들이 해체되고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미래사회에 적합한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고자 한다. 이런 창의성을 기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미술교과와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미술교육 현장에는 미술이 어렵다고 느껴 멀리하거나 흥미를 갖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다. 사물의 형태를 그리는 게 어렵다거나 한 작품의 결과를 보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거나 떠오르는 생각을 이미지로 표현하는 과정이 너무 막연하다는 등 그 이유도 다양하다. 이에 본 연구자가 생각하는 캘리그래피를 활용한 미술수업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창의적 표현능력의 신장을 기대할 수 있다. 창의성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가 ‘독창성(originality)’이다. 이는 모방이나 파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개성과 고유한 능력에 의해 가치를 새롭게 창조하는 것⁵⁴⁾을 말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체제에서는 이런 독창성을 계발하기가 쉽지 않다. 학교에서 요구되는 것들이 대부분 사회적으로 합의된 정답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손글씨’라는 것은 우리가 오랜 시간 써 오면서 무의식적인 습관이나 펜을 쥐는 방법의 차이에 의해 개인 나름의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글자라는 소재는 학생들에게 많이 익숙한 형태라 그리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 형태 그리기에 자신감이 없는 학생들도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정해진 방법이나 소재가 없어 학생들이 낙서하듯이 자유롭게 다양한 도구와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해 써보면서 개성적인 표현능력을 기르기에 적합하다.

둘째, 학생들의 미술교과에 대한 자기효능감 증진이다. 지각된 자기효능감, 즉 특정 영역의 행동을 배우거나 수행하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믿음은 동기와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우기 시작할 때 학생들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을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학습의 진전에 대한 자기평가를 통하여 자기효능감과 동기를 유지시킨다. 대체로 자신이 성공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 학생들은 더 어려운 과제를 시도하고, 높은 성취를 이루는 경향이 있으며, 중요한 사실은 한 영역에서 이전에 성공했던 경험이 있을 때 실패를 견디기 쉽다는 것이다.⁵⁵⁾ 따라서 미술교과에 대한 낮은 자기효능감으로 흥미를 잃어버린 학생들에게 미술에 대한 성공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캘리그래피는 손글씨라는 친근한 소재의 미술수업이라 학생들의 접근이 쉽다. 또 정해진 규칙이나 양식이 없어 다양한 시도가 가능하고, 한 작품을 마치고 결과를 보기위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다른 작품들과 달리 짧은 시간 안에 표현과정에 대한 결과물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여러 번 시도가 가능하다는 점은 실패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어 학생들이 성공 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미술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셋째, 학생들의 올바른 문화적 정체성 형성을 돕는다.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

54) 한국문학평론가협회(2006), 「문학비평용어사전」, 새미, p. 504

55) 로버트 스텐버그 외 1인(Robert J. Sternberg, 2010), 김정섭 외 5인 역, 「스텐버그의 교육심리학」, 시그마프레스, pp. 26-27.

지, 무엇이 자신에게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으며, 자신의 가치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고민하며, 이는 평생동안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 변화와 함께 진로 선택을 앞두고 이런 고민을 가장 많이 하는 시기로,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끊임없이 우리 문화에 대한 가치평가를 하면서 정체성을 형성해 나간다. 하지만 화려한 시각문화에 익숙한 청소년들은 우리 전통문화에 대해 고루하고 재미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전통문화를 피상적으로 경험한 데 따른 것으로 이제는 틀에 박힌 형식에서 벗어나 그 속에 내재하는 특성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현대에 맞게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 캘리그래피는 전통서예와 디자인이라는 대중적인 양식이 결합한 문자예술로써 이를 통해 서예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문화에 대한 학생들의 편견을 해소하고, 관심을 환기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경험들이 학생들에게 반복적으로 누적될 때, 우리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한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학생들의 미적 감수성을 함양시킨다. 디지털 기기의 보급과 인터넷의 발달로 사람들은 많은 일을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지만 쉽게 얻어지는 만큼 또 쉽게 버려지는 문화를 낳았다. 또한 잘 정돈된 문자의 형태는 사람들 간에 의사소통의 효율성은 높여주었으나 인간적 소통에 대한 갈증을 가져왔다. 이는 최근 손글씨 쓰기, 다이어리꾸미기, 컬러링북 등 아날로그 감성을 자극하는 문화들이 대중의 관심을 끄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미술의 표현활동은 인간의 감정과 생각을 표출하는 소통의 한 방식이고, 캘리그래피는 현대인의 삶에 결핍된 인간미를 나누기에 적합한 소통방식이 될 수 있다. 오늘날 우리의 교육은 삶과 분리된 것이 아닌 학생들의 역동하는 삶 속에 살아 숨 쉬며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야 한다. 이에 캘리그래피를 활용한 미술활동을 통해 삶에 인간미를 불어넣음으로써 학생들의 미적 감수성을 길러줄 필요가 있다.

V. 결 론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다. 문화적 가치나 토대가 사회경제의 발전 가능성을 좌우하고, 삶의 질을 결정한다. 이처럼 예술적 소양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의 미술 교육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고, 미흡한 교육 환경 및 기법위주의 수업방식으로 인해 학생들은 미술교과에 대한 흥미를 잃고 있다. 이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어렵게 한다. 이를 위한 우선 과제는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접근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해답을 캘리그래피를 활용한 미술수업에서 찾아보았다.

이를 위해 이론적 배경에서는 캘리그래피의 역사와 특징에 대한 이해를 통해 현대적 의미의 캘리그래피를 정의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캘리그래피를 활용한 미술수업이 학생들의 창의성 계발과 정서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늠해 보았다. 이를 토대로 캘리그래피와 미술교육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2009개정 선택교육과정 미술 창작을 분석하여 캘리그래피를 활용한 미술수업지도안을 구안해 실시하였다. 수업 후 설문지법 및 관찰법 등을 통해 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캘리그래피는 학생들에게 매우 친근한 소재로 학생들의 미술교과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높이고, 창의적인 표현을 가능하게 하여 미술교과에 대한 흥미를 진작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둘째, 전통서예의 재료인 먹, 붓, 화선지 등을 현대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과정을 통하여 창작의 본질이 해체와 재구성을 통한 재창조라는 것을 알게 해주어 문제해결에 있어 학생들의 유연한 사고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셋째, 삶 속에서 마주치는 시각문화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직접 경험을 통해 그 속성을 파악해 봄으로써 미술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바라보려는 비평적 탐구의 태도를 기르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이와 더불어 캘리그래피를 활용한 수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교육여건이 수반되어야 함도 알 수 있었다. 먼저 캘리그래피를 활용한 미술 수업은 학생들이 다양한 재료를 실험하고,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수업시간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이는 교육정책이라는 큰 틀 안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교사의 재량으로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다. 또한 다양한 표현 도구를 마련하기 위한 물리적 여건의 확보도 중요하다. 캘리그래피의 표현 특성상 표현 재료의 다양함이 경험의 질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술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맞는 교육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미술교육환경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

본 연구에서 캘리그래피를 활용한 미술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미술교육의 덕목 중 하나인 학생들의 창의적 표현능력의 신장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누구나 개인만의 고유한 글씨체를 갖고 있기에 이를 통해 창의적 표현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쉽게 개성적인 표현을 해볼 수 있고, 이는 미술교과에 대한 자기효능감도 증진시킬 수 있다. 또한 전통 서예의 기본 재료인 먹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켜 우리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돕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와 함께 학생들의 미적 감수성을 함양시킴으로써 미술을 통해 사회문화적 현상들을 이해하고 생활 속 경험과 연결 지어 생각할 수 있는 미적 안목을 길러줄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2차시로 구성하여 수업하였으나 수업 후 설문조사결과 30% 정도의 학생들이 연습 시간 부족으로 캘리그래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답하였다. 따라서 충분한 수업 시간을 확보하여 연구를 실시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캘리그래피를 활용한 포스터 제작하기를 통해 캘리그래피에 대한 이해를 도왔지만 캘리그래피는 우리 생활 속에서 다양한 디자인 분야에 활용되고 있음을 인지하여 여러 단원과 연계한 수업이나 타 교과와의 통합수업을 주제로 한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비롯해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수업지도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학교현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참 고 문 헌

<단 행 본>

- 강성중 외 1인(2008), 「정보디자인 교과서」, 안그라픽스
- 국사편찬위원회(2011), 「한국 서예문화의 역사」, 경인문화사
- 권명광 외 4인(1996), 「디자인사전」, 안그라픽스
- 김성숙 외 8인(2008), 「미술교육과 문화」, 학지사
- 김지현(1997), 「타입과 타이포그래피」, 임프레스
- 김희정(2007), 「서예란 어떤 예술인가」, 다운샘
- 박선의(1990), 「디자인 사전」, 미진사
- 서승연 외 2인(2004), 「타이포그래피 천일야화」, 안그라픽스
- 선병일 외 15인(2013), 「디자인 공감」, 두성북스
- 안상수(2006), 「라라 프로젝트01 우리 디자인의 체다움 찾기」, 안그라픽스
- 왕은실 캘리그래피(2013),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 캘리그래피」, 길벗
- 월간미술(2007), 「세계미술용어사전」, 월간미술
- 이기문(2006), 「동아 새국어사전」, 두산동아
- 이규복(2008), 「캘리그래피」, 안그라픽스
- 이규복(2015), 「캘리그래피 교과서」, 안그라픽스
- 중앙일보사(1989), 「세계미술용어사전」, 중앙일보사
- 최범 외 12인(1999), 「디자인|텍스트」, 홍디자인출판부
- 한국문학평론가협회(2006), 「문학비평용어사전」, 새미
- 홍영일(2010), 「디자인을 완성하는 레이아웃과 그리드」, 미진사
- Arnheim Rudolf (2010), 김춘일 역, 「미술과 시지각」, 미진사
- Osborne Harold(2002), 한국미술연구소 역, 「옥스퍼드 미술사전」, 시공사
- Strickland Carol(2012), 김호경 역, 「클릭, 서양미술사」, 예경
- Sternberg Robert J.&Williams Wendy M.(2010), 김정섭 외 5인 역, 「스턴버그의 교육심리학」, 시그마프레스

<기 타 문 헌>

- 강해중 외 10인(2014), 「고등학교 미술창작」, 미진사
교육과학기술부(2011), “2009개정 미술과 교육과정”, 2011-361
김지인 외 2인(2011), “상호 혼성적 디자인으로서의 융합디자인 개념”, 한국디자인포럼 Vol.32
노영자 외 3인(2014), 「고등학교 미술 창작」, (주)교학사
장지성 외 5인(2014), 「고등학교 미술 창작」, (주)천재교육
전태련(2010), 「함께하는 교육학 4」, 마이썸
조익환 외 8인(2014), 「고등학교 미술 창작」, 씨마스

<참 고 사 이 트>

- 전가경(2014), 네이버캐스트, 매일의 디자인, 디자이너 열전, 정병규,
<http://navercast.naver.com/>

<Abstract>

The Research of High School Art Teaching Methods using Calligraphy

YANG, Hyo-Ju

Department of Art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Min-Suk Kang

In modern society that changes rapidly, every field has its limit, so they make new value creations with liveliness by combining it. To meet the expectation of our era, they actively try to merge some areas into one and hope to develop a new possibility. To produce many men of distinguished talent that will play an important part in the future, art education needs to provide a creative curriculum of various genres of the past and the present. But they do not achieve effective art education for they are indifferent to art education, do a wrong approach to it and have the entrance-oriented system and many wrong institutions.

Hereupon, this research chose calligraphy produced in the course of typography being combined with traditional calligraphy as the contents of education for the Convergence Human Resource and studied the methods of art teaching using calligraphy. By examining literature I considered the present meaning of calligraphy and arranged a guide of art teaching making use of calligraphy. So I framed a draft about the teaching methods of poster

production composed of two periods, taught 158 students of 4 classes in J high school, je ju city, je ju do and analyzed the results.

First, The classwork making use of calligraphy made the students that lacked self-efficacy in the intimacy of handwriting relieve the burden of failure and they were able to engage in creative activities actively.

Second, it improved the interest in art subject as well as calligraphy by being involved in self-expressing activities such as handwritings.

Third, it made them recognize ink stick anew, awaken an interest in a traditional calligraphy and have an importance to reinterpret it in a modern perspective.

Fourth, it helped them raise integrated thinking power to cope with problem solving with flexibility by finding the different ways of expressions for their goals with various expression materials.

Last, I hope that this research of art teaching using calligraphy will motivate the students who lost interest in art owing to technique-centered art teaching to arouse an appetite for human natural creativity again and help raise the ability to lead a creative life and interact with others well in the era of fusion world.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2015. 8.

학습자 실태 및 요구도 조사

본 설문지는 '캘리그래피'에 대한 여러분의 교육적 경험과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에는 정답이 없으므로 본인의 생각을 솔직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사의 결과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 질문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로 표기하여 주십시오.

1-1. 평소 미술과목에 흥미가 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2. 흥미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미술 실력이 부족해서
- ② 내용 자체가 지루해서
- ③ 완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 ④ 기타()

⇒

2-1. 본인의 미술 실력은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2. 미술 실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숙련된 기술
- ② 고정관념을 깨는 아이디어
- ③ 개성표현(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것)
- ④ 기타()

⇒

3-1. 문자디자인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3-2. 문자디자인 경험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 ① 서예
- ② POP
- ③ 캘리그래피
- ④ 문자도
- ⑤ 기타()

⇒

4-1. 캘리그래피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① 매우 잘 안다.
- ② 그렇다.
- ③ 잘 모른다.
- ④ 전혀 모른다.

4-2. 알고 있다면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 ① TV (광고, 방송타이틀)
- ② 상품 패키지
- ③ 영화포스터
- ④ 책
- ⑤ 기타()

⇒

*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업 만족도 조사

본 설문지는 '캘리그래피' 미술수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에는 정답이 없으므로 본인의 생각을 솔직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사의 결과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 질문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로 표기하여 주십시오.

1-1. 수업 내용이 흥미로웠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1-2. 흥미를 느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결과를 쉽게 볼 수 있어서
- ② 다양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어서
- ③ 재료마다 다른 느낌의 표현이 재밌어서
- ④ 내 글씨만의 독특한 표현이 가능해서
- ⑤ 기타()

2-1. 캘리그래피의 특징을 잘 이해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2-2. 잘 이해하지 못했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연습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 ② 내용이 지루해서
- ③ 표현재료가 부족해서
- ④ 어렵다고 느껴져서
- ⑤ 기타()

3. 캘리그래피 수업을 통해서 우리나라 전통 서예의 주재료인 '먹'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4. 캘리그래피 수업이 미술에 대한 관심을 갖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5. 캘리그래피 수업을 하고 난 후의 소감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